

HUBLOT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02 2118 6208
 롯데백화점 월드타워점 02 3213 2238
 갤러리아 EAST 02 540 1356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02 3438 6030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 3467 8734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 3479 6021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 660 3132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 245 2221
 롯데백화점 부산 서면점 051 810 4123
 신세계백화점 부산 센텀시티점 051 745 1346

www.hublot.com • twitter.com/hublot • facebook.com/hublot


HUBLOT

위블로
 클래식 퓨전 에어로 크로노그래프,
 셀프 와인딩 스켈레톤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킹 골드 케이스, 블랙 러버 위의 엘리게이터 스트랩.

Style

조선일보

FEBRUARY 2015 vol.120



TIFFANY & Co.
 NEW YORK SINCE 1837



OMEGA



Ladymatic

NICOLE KIDMAN'S CHOICE

Ω
OMEGA

청담 부티크 02 511 5797 • 신세계 강남점 02 3479 6025 • 롯데 잠실점 02 2143 7266 • 현대 무역센터점 02 3467 8632
현대 목동점 02 2163 1283 • AK플라자 분당점 031 708 5520 • 현대 대구점 053 245 2249 • 현대 부산점 051 667 0417

BURBERRY

BURBERRY.COM



**MONT
BLANC** 



Meisterstück Heritage Perpetual Calendar and Hugh Jackman

마이스터스틱 헤리티지 퍼페추얼 캘린더와 휴 잭맨

Crafted for New Heights

Featuring one of the most delicate complications in fine watchmaking, the Montblanc Meisterstück Heritage Perpetual Calendar will require no adjustments until the year 2100, so long as its automatic Caliber MB 29.15 is kept sufficiently wound. Housed in a 39 mm 18 K red gold case, this refined timepiece truly promises to be a lifetime companion. Visit Montblan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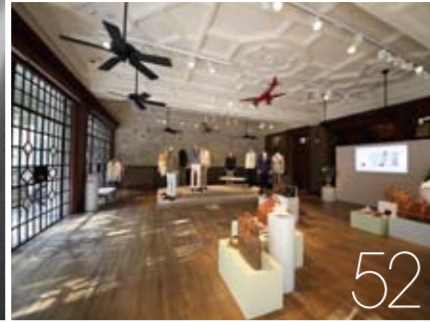
Meisterstück 90 Years Collection



GUCCI



40



52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2015년 봄 세계적인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광고 캠페인이다. 진정한 사랑, 그리고 전 세계 위대한 러브 스토리와 함께해온 티파니는 이번 시즌부터 "영원히 함께할까요(Will You)?"라는 타이틀 콘셉트 아래 뉴욕을 배경으로 커플들의 만남에서부터 결혼까지 다양한 단계의 로맨틱한 순간을 담아냈다. 문의 02-547-9488



42



16

- 18 **관심 경제의 시대, 대중문화는 우리의 뇌세포를 어떻게 깨우는가?** 다양성이 풍부한 시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오늘날의 문화 콘텐츠는 독특하게 진화하고 있는 것일까?
- 22 **BRILLIANT TIME** 작은 반짝임이 전하는 섬세한 속삭임, 손목을 감싸는 무브먼트의 두근거림이 완성하는 시간의 예술.
- 24 **DELUXE BEAUTY** 소란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매력적인 피부로 만들어주는 초고가 안티에이징 뷰티 컬렉션.
- 26 **SWEET MATCH** 사랑의 스타일을 한껏 살릴 셔츠와 타이의 매칭 공식을 소개한다.
- 28 **BRIDAL PERFUME** 매력적인 향기는 신부를 더욱 빛나게 하고, 아름다운 웨딩의 순간을 황홀경으로 이끈다.
- 30 **SHOW CASE** 포인트 액세서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지갑의 변신.
- 32 **DREAMING WEDDING** (스타일 조선일보)가 제안하는, 지금 가장 멋진 웨딩을 위한 주얼리 & 워치 컬렉션.
- 40 **TIMELESS GLORY** 스포티한 디자인의 남성 워치부터 클래식하고 대중적인 디자인의 여성 컬렉션까지 태그호이어의 매력적인 시계, 그 중에서도 올해 새롭게 선보인 뉴 캐리비안 레이디 컬렉션을 소개한다.
- 42 **A SPECIAL DAY** 개성 있는 실루엣과 가벼운 소재의 레이아웃으로 신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2015 S/S 웨딩드레스.
- 48 **DEAR LADY** 럭셔리함의 극치를 느낄 수 있는 약어 가방부터 트렌디한 요소를 갖춘 잇백까지, 품격 있는 에단 백 컬렉션.
- 49 **ENGAGEMENT ICON**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향한 순수한 열정이 담긴 블루 박스의 실럼, 티파니의 가장 클래식한 웨딩 링 컬렉션.
- 50 **TO YOU WITH LOVE** 직지만 강렬한 오로라 속에서 우아한 빛을 발하는 데일리 네크리스 컬렉션.
- 51 **DIAMONDS IN EXCELLENCE** 빛깔과 커팅, 투명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다이아몬드는 주얼리 완성 중 가장 까다로운 소재다.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은 공산력 있는 주얼리 브랜드의 다이아몬드인지 여부다.
- 52 **BANNER BENEFIT** 바버리가 선보이는, 가장 바버리다운 컬렉션 배너 백을 소개한다. **THE GREAT ESCAPE** 알프레드 단원의 카다란 가죽 트래블 백에 가벼운 실크 셔츠와 활동성을 높인 재킷, 몸을 포근하게 감싸는 드라이 코튼 니트, 언제라도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수영복을 담은 여행 준비 끝이다.
- 53 **NEW ICONIC BAG** 유려미만 감성과 캐주얼한 실용성을 모두 담은 알프 로렌 라기 드로스틀링 백 컬렉션.
- 54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들이 직접 사용하고 선택한 매력적인 아이템들.
- 55 **MULTIPLE ACTION** 탱탱하게 탄력 있고 힘 있는 피부를 위한 입생 로랑의 새로운 멀티 토닝 에센스를 만나보자.
- 56 **LUXURY WEDDING GIFTS** 럭셔리 코즈메틱 브랜드의 스테디셀러 제품부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특별한 성분의 안티에이징 화장품까지 아름다움의 정수만 모은 에단 화장품 세트를 소개한다.

Style 조선일보

Issue.120 February 2015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인턴 에디터 | 김수경 skkim@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동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빙간로 413 현대 하이패션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Sold exclusively in Louis Vuitton stores. Tel. 02 3432 1854 www.louisvuitton.com
 루이 비통 패스 (Louis Vuitton pass) 앱을 다운로드하면 더욱 특별한 콘텐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LOUIS VUITTON



Jewel
SIMPLY LOVE

순수한 사랑과 섬세한 여성미, 아름다운 메시지를 담은 사랑의 주얼리.

가운데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옐로 · 화이트 · 핑크 골드로 세트 세트를 표현한 트라피 칼렉션 하트 네크리스 69900원대 **까르띠에**, 심플한 하트 모티브에 원형 모티브를 다룬 세련된 불가리 링 39900원대 **불가리**, 불가지 않는 매력을 의인하는 리본 모티브 누 브랑 링 19900원대 **루시에**, 핑크에서 영감을 얻은 다이아몬드 세팅 아이링 1천만 원대 **부쉐**, 청사진 곡선으로 하트를 표현한 인텐트 컬렉션 네크리스 69900원대 **타사기**, 핑크 컬러 투르말린으로 독특한 형태의 하트 세트를 완성한 하트 에피아너 네크리스 99900원대 **타사기**, 에디터 **베인진**

포토그래피 박진주

Fashion
MADE TO ORDER FOR WEDDING

가운 웨딩 아이템이 식상하거나, 남들과 다른 특별함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오직 나만을 위해 특별한 맞춤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품 브랜드의 MTO(Made to Order) 프로그램에 주목할 것. **까르띠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링 중, 고객이 직접 선택한 다이아몬드로 특별한 웨딩 링을 만들어주는 '셋 포 유 바이 까르띠에'를 제공한다. 고객은 GIA의 기준에 따라 엄선한 최고 등급의 다이아몬드 중에서 캐럿, 컬러, 투명도 등을 선택한 뒤, 14개의 미온데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한다. 이렇게 엄선한 스톤을 원하는 디자인의 링 위에 완벽하게 세팅해 오더 후 단 4주 만에 고객의 손에 전달된다. **루시에** 역시 고객의 취향과 요구를 전적으로 반영한 웨딩 오트 쿠튀르 메이드 투 오더 주얼리를 제공한다. 기본 디자인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특별한 디자인과 섬세한 취향을 파악해 일본에 있는 디자이너가 주얼리 스케치와 구체화한 디자인을 샘플로 제작한다. 이후 일본의 주얼리 장인들 이 이를 100% 핸드메이드로 제작해 서울로 배송하는 것. 이는 10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보다 특별한 예단 7형을 원한다면 **루이 비통**의 '오드 마로 카레라'를 눈여겨볼 것. 총 57가지 디자인 중 선택해 자신만의 기쁨을 만들 수 있다. 스카족, 악가죽 등 8종류의 가죽 중 선택이 가능하고, 여가 대체로 27가지 컬러와 지물쇠 장식을 추가로 선택함으로써 4만여 가지가 넘는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 더불어 루이 비통은 신랑의 완벽한 턱시도룩을 위해 메이드 투 오더 벨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재와 컬러, 버클 등의 마감 방식을 선택하면 자신의 취향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벨트를 소유할 수 있다. 일상 일대의 이벤트를 위한 나만의 수트를 찾는 예비 신랑들에게 **에르메네빌도 제나**는 맞춤 수트 서비스인 '수 미주'를 제공한다. 숙련된 테일러가 사이즈를 측정하며, 4백50여 가지 패턴, 1백여 가지 모델과 세심한 디테일을 모두 선택해 제공할 수 있다. **에디터 권유진**

까르띠에

루시에

에르메네빌도 제나

루이 비통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Living
프리미엄 디저트의 행진은 계속된다

일류 호텔에서 애프터 디저트 부페나 전문점을 열고, 대다수 커피 전문점이 디저트로 승부수를 띄울 만큼 발달한 전성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어느새 밥보다 커피, 커피보다 디저트라고 할 만큼 맛과 품질이 뒷받침된다면 지갑을 사슴같이 여는 '디저트족'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각종 럭셔리 디저트 브랜드가 한국에 속속 상륙하고 있다. 영국 의 막스앤스펜서(M&S) 푸드 스토어는 최근 현대백화점과 손잡고 진출했는데, 이 중에서도 단연 디저트류가 눈에 띈다. 2년 전 일본 디저트 풍수슈 도자카를로 엄청난 인기를 끄는 데 성공한 현대백화점은 작년에는 프랑스 마카롱 브랜드 파리에 에르메네빌도 제나 어 막스앤스펜서 푸드 스토어 역시 무역센타점과 입구점 본점, 두 곳에 선보이면서 한국 진출을 알렸다. 인공 착색제를 넣지 않은 초콜릿과 명성 높은 유기농 쿠키, 그리고 이미 일명 '돼지 젤리'로 인공분이 파진 피사넬라 젤리 등 영국에서도 인기 있는 막스앤스펜서의 주요 디저트를 접할 수 있다. 2월에는 프랑스의 럭셔리 수제 초콜릿 브랜드 라 메종 뒤 쇼콜라(La Maison Du Chocolat)가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국내 1호점을 연다. 창립자 로버트 랭스가 1977년 파리의 유명 아틀리에에서 탄생시킨 이는 초콜릿은 가장 질 좋은 카카오 콩을 사용하며 그 맛을 책임지는 마스터 파티시에 나폴라 클로아조를 '초콜릿 장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1년에 2백만 이상의 레시피 테스트와 리서치 작업으로 '작품 수준으로 맛을 지켜'가는 한편 매 시즌 새로운 초콜릿 컬렉션을 선보인다고, 아무래도 당분간 디저트 열풍은 쉬이 수그러들지 않을 듯하다. **에디터 고성연**



라 메종 뒤 쇼콜라



막스앤스펜서

M&S

Beauty
ROSY PINK LIPS

여자의 일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 순간은 단연 웨딩 데이다. 웨딩 메이크업을 마무리하는 립 제품을 잘 골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혼식 당일에도, 시간이 흘러 웨딩 사진을 꺼낼 때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고 싶다면 은은하고 우아한 핑크 컬러 립스틱을 바를 것. (맨 위에서 차례대로) **디올 루즈 디올**은 화사한 자켓 핑크로 얼골 전체를 밝힌다. 모던하고 섬세한 색감으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인성맞춤이다(3.5g 3만9천원). 건조하고 갈라진 입술로 웨딩 사진을 하고 싶지 않다면 **헝클 입술퀴 루즈**를 선택하자. 입술에 영양을 공급하며 하루 종일 촉촉하게 가꿔준다. 또 독자적인 색채 추출 기법으로 장미 꽃잎에서 피그먼트를 추출해 마치 한 떨기 장미가 피어오른 듯 선명한 입술을 표현한다(4.2ml 3만9천원). **샤넬 루즈 알뤼르**는 입술을 은은하고 사랑스럽게 물들인다. 어느 피부 톤에나 잘 어울리는 색상으로 여신처럼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 신부들에게 추천한다(3.5g 4만 천원). **시세이도 베일드 루즈**는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 립 컬러와 광택을 오래 유지하며, 미세한 꿀은 빛이 비칠 때마다 입술 위에서 아름답게 반짝인다. 버진 로드에서도, 피로연에서도 입술을 더욱 매력적으로 연출해줄 것(2.2g 3만6천원). **에스티 로더 퓨어 컬러 크리стал 립스틱**은 시어 입자가 입술을 잃고 부드럽게 강사 각도에 따라 다채롭게 빛나는 입술을 선사한다(3.8g 3만8천원). **인생로랑 루즈 불림피**는 실크처럼 부드럽고 크리미한 텍스처로 입술을 촉촉하게 해준다. 사랑스러운 딸기 유유 컬러로 한층 더 보이게 러블리한 매력을 풍기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선택할 것(4g 3만9천원). **에디터 김수경**

포토그래피 박진주



©Vladimir Mayakovsky - Emperor of Russia

Exhibition
〈아프리카 나무〉展

국내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아프리카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지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2월 15일까지 열리는 〈아프리카 나무 - Political Patterns〉라는 전시회다. 아프리카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다양한 지역에 흩어진 작가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 놓아 아프리카나 디아스포라를 연상케 한다. 일단 존 아콰포, 앙카 쇼비베, 크리스 오펜라 등 영국에서 활동하는 저명한 아프리카인들이 눈에 띈다. 존 아콰포는 영화를 통해 1980년대부터 흑인 인권 문제를 다뤘고, 앙카 쇼비베는 민족적인 느낌을 두른 마네킹 등을 통해 백인 중심 문화에 비판적인 해석을 가한 인물로 유명하며, 2003년 베니스 비엔날레 영국 대표 작가로 선정된 크리스 오펜라도 코끼리 풍을 바른 유향 작품을 내놓는 식으로 자타가 개성과 실력을 지닌 장엄한 작가들이다. 또 테레사 게이즈, 케네티 와일리, 헨크 윌리스, 토마스, 닉 케이브 등 미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그리고 아프리카에 실제로 거주하며 활동하는 관심사로 미룬다. 조디 비버, 논스케펠로 벨로코 등도 포함돼 있다. 미국과 유럽의 제국주의와 식민 정책, 노예제도 등 억압된 서구의 근대사에 대한 비판적 성찰, 그리고 후기 식민 시대 아프리카 대륙 내의 민족주의나 종교 분열에 관한 서사를 날카롭게 재치 있게 다루는 솜씨가 흥미롭다. 20여 명 작가의 1백여 점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는 예술적인 감흥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듯하다. 더구나 무료 전시다. 홈페이지 sema.seoul.go.kr **에디터 고성연**

자료: 서울시립미술관



+822 3443 2323 prada.com

PRADA



1 위트 있는 무당벌레 패턴의 실크 보타이 20만원대 **에르메스**. 2 심플하지만 임팩트 있는 T 버클이 눈에 띄는 송이가지족 벨트 90만원 **폴 포드 by 분더샵**. 3 블랙 라벨로 포인트를 준 담 블루 재킷 3백49만원, 화이트 드레스 셔츠 88만원대, 담 블루 밴츠 가격 미정, 블랙 보타이 가격 미정 모두 **구찌**. 4 브랜딩 고유의 성세한 플루팅 패턴과 유니크한 안테스, 상징적인 블루 핸드에서 정통성이 느껴지는 클래식 크로노메트리 7727 워치 55만원 원대 **브레게**. 5 심플하지만 유니크한 카탈로 포인트가 되는 화이트 골드 밴드 링 64만원 **골든듀**. 6 질감이 느껴지는 견고하고 실용적인 가죽으로 만든 네이비 브리프케이스. 43x29.5cm, 3백만원대 **자형시**. 7 날렵하고 매끈한 라인이 클래식한 레이스업 슈즈 1백25만원대 **말프 로렌 퍼플 라벨**. 8 사랑하는 이의 이니셜을 새겨도 좋을 만한 다이아몬드 패턴 카드 지갑 가격 미정 **루이 비통**. 9 신중한 블루 컬러와 로고 장식의 매치가 매력적인 커피스 링크 70만원대 **까르띠에**. 10 현대적이고 우아한 디자인과 레드 골드 보다가 중후한 멋을 자아내는 스타워치 레드 골드 만년필 1백48만원 **몽블랑**. 11 자적인 인상을 더하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인강 48만원 **폴 포드**. 12 가죽을 닦는 자물쇠와 열쇠 모티브가 돋보이는 키 링 48만원대 **루이 비통**. 13 빈복되는 큐브 패턴이 감각적인 블루 컬러 실크 타이 20만원대 **에르메스**.

에르메스 02-544-7722 분더샵 02-3444-3300 브레게 02-3438-6218 구찌 1577-1921 루이 비통 02-3432-1854 폴 포드 02-6905-3534 까르띠에 02-544-2314 몽블랑 02-3485-6627 말프 로렌 퍼플 라벨 02-545-8200 자형시 02-517-7560 골든듀 02-3415-5796

for him Selection

틀에 박힌 턱시도 룩은 이제 식상하다. 멋을 아는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남성이라면 블루 톤의 턱시도와 감각적인 액세서리로 스타일에 힘을 더할 것. *photographed by kim do hyun*



The Rolling Stones

EL PRIMERO CHRONOMASTER 1969
TRIBUTE TO THE ROLLING STONES



ZENITH
SWISS WATCH MANUFACTURE
SINCE 1865

WWW.ZENITH-WATCHES.COM | WWW.ROLLINGSTONES.COM

DOMESTIC
갤러리아 EAST 02-512-6088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02-2118-6225
롯데백화점 월드타워점 02-3213-2238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111
롯데백화점 부산 서면점 051-810-4128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02-3438-6031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733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83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332
신세계백화점 부산 센텀시티점 051-745-1346
AK플라자 분당점 031-8023-2191

DUTY FREE
롯데면세점 소공점 02-3707-9628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02-556-3279
롯데면세점 부산 서면점 051-810-3862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032-743-7923
롯데면세점 제주점 064-731-4482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051-749-1352
원키월세점 02-450-6486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 032-743-2109

for her Selection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눈부시게 반짝이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수줍게 서 있다.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그녀를 빛내줄 웨딩 패션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1 하늘거리는 얇은 레이스에 화려한 크리스털 장식을 더해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심루엣을 자랑하는 웨딩드레스 1천만원대 **제니 박팀 by 아틀리에 루**. 2 뽀얀 연상케 하는 골드 버클의 핑크 색인 클러치. 28X12cm, 1백50만원 **통 포드**. 3 여성스러운 핑크 컬러 프레이밍 선글라스 40만원대 **올세인트비나 by 룩스타카 코리아**. 4 총 2,297원 에 달하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하트 모티브의 네크리스 가격 미정 **그라프**. 5 로맨틱한 핑크 컬러의 하트 세이프 다이아몬드와 페어 컷 다이아몬드가 조화를 이룬 4.08캐럿 솔리테어 링 가격 미정 **그라프**. 6 우아한 진주 장식이 포인트 인 골드 밴드 가격 미정 **클로에**. 7 스틸 & 로즈 골드 콤비 브레이슬릿 과 배젤에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여성스럽고 화려한 26.5mm 프리 마루나 워치 6백만원대 **클린**. 8 지극히 로맨틱하고 여성스러운 플로럴 향이 매력적인 엘리자상 오 드 퍼퓸. 50ml, 12만8천원 **엘리자상**. 9 레트로 무드가 느껴지는 산뜻한 레드 컬러의 소가죽 캐리어. 35X48cm, 7백98만원 **구찌**. 10 화려한 주얼 장식과 글러터 소재가 발끝을 빛내줄 스틸레토 힐 1백48만원 **자미추**. 11 럭셔리한 악이 가죽으로 만든 누드 핑크 컬러의 브라운 토트백. 30X23cm, 2천만원대 **엘보**. 12 페어 세이프와 리온드 브릴리언트 컷의 스톤이 우아한 곡선을 따라 아름답게 장식된 다이아몬드 문테나 사피어 타이탄 1억원대 **타미니**. 13 아름다운 순금을 간직할 수 있는 크리스털 라인 액자 51만원대 **스외로브스키**.

그라프 02-2256-6810 룩스타카 코리아 02-501-4436
통 포드 02-6905-3640 아틀리에 루 02-517-3889 스외로브스키 1661-9060 타미니 02-547-9488 엘보 02-3449-5916 자미추 02-3443-9469 구찌 1577-1921
클린 02-310-1597 클로에 02-515-1196
엘리자상 02-2143-7186



TASAKI

BRIDAL

Avenuel World Tower 02.3213.2264 Hyundai Apgujeong 02.3438.6023 Hyundai Daegu 053.245.2247 Shinsegae Main 02.310.1854
Shinsegae Gangnam 02.3479.1232 Shinsegae Gyeonggi 031.695.1927 Shinsegae Centum City 051.745.1479 www.tasaki.co.kr



‘관심 경제’의 시대, 대중문화는 우리의 뇌세포를 어떻게 깨우는가?

영국의 사회학자 도널드 서순은 인터넷 시대에 생산되는 문화 콘텐츠는 과거에 비해 일관성이 훨씬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일찌감치 주장했다. 콘텐츠가 파편화 양상을 띠며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져 각자 자신이 선호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실제로 오늘날 미디어 기업이나 광고주가 그토록 갈구하는 관심을 이끌어내기가 무척이나 힘들어졌다. 다양성이 풍부해진 시대인 만큼 희소 가치 또한 늘어난 관심, 그 영예로운 타이틀을 얻기 위해 문화 콘텐츠가 똑똑하게 진화하고 있는 것일까?

2006년 시사 주간지 <타임>은 ‘올해의 인물로’ 당신(You)을 선정했다. 흔히 ‘보통 사람들’로 표현되는 개개인 모두가 블로그나 유튜브,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공간 등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사회·문화적 변혁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당시 <타임>지 편집장은 “이 현상은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다”라면서 예년처럼 어떤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택한 이유를 밝혔다. 당시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특별한 외적 보상을 바라거나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야망에 불타 사이버 공간에서 그토록 왕성하게 활동을 펼친 건 아니었을 것이다. 아무런 대가 없이도 때로는 ‘놀이처럼’ 신명 나게, 때로는 ‘답답함’이나 ‘분노’를 저돌적으로 분출하고 다수와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간 이들이 많았다. 오늘날 이러한 디지털 연대는 소소하게는 유튜브 스타를 탄생시키기도 하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위키피디아 같은 참여적인 방식의 웹 백과사전을 만들어내기도 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심지어 대선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강력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합합 음악가의 지지를 얻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바탕으로 한 노래가 만들어졌고 가수, 운동 선수, 배우 등 수십 명의 인기인이 자발적으로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유튜브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확산된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1982년에는 컴퓨터가 특정 개인이 아닌 ‘존재로서’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 뽑혔는데, 한 세대가 지나자 네트워크의 힘까지 가세해 ‘집단지성’이 무럭무럭 자리나면서 미디어와 콘텐츠 생태계에 대대적인 변혁을 일으킨 것이다.

정보에 대한 피로도가 갈수록 치솟는 시대, ‘진정한 관심이 희소해진다

사실 1인 미디어를 비롯해 다양한 소통 매체가 생겨난다고 해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반드시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단지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졌다. 콘텐츠를 다루는 채널과 크리에이터가 훨씬 다양해지고, 당연히 사람들의 흥미도 훨씬 더 다채롭게 분화되면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사키 도시나오 같은 미디어 전문가는 이러한 다원화 경향으로 ‘매스’는 소멸하고, ‘소중(少衆)·분중(分衆)’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관심의 갈래가 사방팔방으로 흐르고, 이러한 ‘파편화’ 현상을 기꺼이 충족시키는 온갖 콘텐츠가 지구 어디에든 솟아나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처럼 풍부하다 못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넘쳐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런 노출에 따른 피로도 역시 높아지면서 소중이든 대중이든 사람들의 ‘시선’을 온전히, 그리고 오래도록 붙잡기는 힘들어졌다. 안 그래도 현대인들은 대부분 실제 여가 시간과 상관없이 심리적으로는 늘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시간 예측자들’이다. 따라서 핵심은 5천만의 느슨한 눈길을 받는 것보다는 5만, 50만

일지라도 폭발적인 지지, 또는 뜨거운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 결국 본질은 ‘진지한 관심’의 쟁취다. 개인이 댓글 놀이를 하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열심히 소식을 전하든, 방송사가 뉴스나 예능을 제작하든, 누가 됐든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결국에는 ‘나 좀 주목해달라!’고 손짓하는 ‘관심 경제’의 논리로 귀결되는 셈이다. 특히 대중의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과 연예인은 그런 대열에서도 선두 주자일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에서는 ‘워싱턴과 할리우드’는 사실 경쟁 관계라는 뼈 있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겠는가. 그 관심이 호의적이냐, 부정적이냐는 중요한 차이일 테지만 관심 끌기에 급급하다 보면 ‘나쁜 관심’이라도 무관심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콘텐츠는 갈수록 자극적으로 호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많은 이들은 ‘진정성’을 외치고 ‘자극성’을 비난하면서도 실제로는 ‘에매하게 착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당장 드라마만 하더라도 관심의 척도인 시청률에서는 ‘막장’이 앞서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뇌세포를 깨우는 콘텐츠는 어떻게 다를까?

하지만 사람들은 비슷한 패턴에 예상 가능한 전개 스토리라면 결국은 막장 드라마에도 흥미를 잃게 마련이다.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나온다 해도 반짝 화젯거리에 그칠 뿐, 진정한 관심은 얻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막장도 진화까지는 아닐지라도 나름 변신을 시도하기도 한다. 가공할 만한 악녀 캐릭터를 창조해낸 <왔다! 장보리>나 스틸 있는 추리 구조와 집단 주인공을 내세운 <전설의 마녀> 같은 드라마의 인기는 통속극의 흥행 공식에서 자유롭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너무 뻔한 전개에서 벗어나려는 갖은 노력에 대한 보답일지도 모르겠다. 사실 막장과 웹 메이드의 차이는 작품성과 만물세에 있지 않은가. 뉴스에 빈번히 등장하는 황당한 현실의 면면만 봐도 막장극의 스토리가 꼭 억지스럽지만은 않다. 예컨대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미드 시리즈로 꼽힐 만한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를 예로 들자면, 주요 키워드만 보면 거의 막장 분위기가 풍긴다. 권모술수와 배신, 불륜, 변태스러운, 살인까지. 그렇지만 실상은 탐욕스러운 정치판을 밀도 높게 그려낸 웹 메이드 정치극으로 에메상과 골든글로브 등 각종 영예로운 상을 휩쓴 데다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시진핑을 비롯한 정계 리더들까지도 마니아를 자처하고 나서게 한 흥행작이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뇌세포를 깨우는 시리즈가 웹 드라마라는 사실이다. 더구나 미디어 콘텐츠의 전통 강자가 제작한 것도 아니다. 온라인 DVD 렌탈업체 넷플릭스가 1990년대 영국 BBC 드라마를 바탕으로 만든 ‘리메이크 버전’이며 이 기업이 자체 제작해 인터넷 스트리밍 형식으로 배포한 첫 작품이다. 넷플릭스는 자사 회원들의 취향을 분석해

저마다에게 작품을 권하는 ‘시네 매치’는 영화 추천 엔진으로 유명했는데, 이러한 강점을 활용해 ‘빅데이터’의 미학을 제대로 발휘해 신중하게 리메이크와 후보를 골랐고, 이를 책임질 만한 감독과 배우로 각각 데이비드 핀처와 케빈 스페이시를 선호한다는 점까지 파악해 실제로 가용했다고 한다. 이처럼 고객의 수요를 미리 꿰뚫고 반영하는 제작 방식은 ‘쌍방향 소통’을 강조하는 ‘미디어 2.0’ 시대의 흐름을 파악한 영민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일주일에 1~2회씩 내보내는 시리즈 배포의 전통을 깨고, 모든 에피소드를 한꺼번에 공개하는 파격도 감행했다. ‘말아보기’에 익숙해진 요즘 세대들이 열광한 건 두말할 것도 없다.

점점 치열해져가는 플랫폼 싸움에서 비롯되는 콘텐츠의 진화

<하우스 오브 카드>의 성공에 자극을 받았는지 ‘공룡’ 인터넷 서점 아마존이 영화 제작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린다(아마존은 이미 TV 시리즈를 제작한 경험도 있다). 심지어 한 달에 한 편씩 개봉할 정도로 부지런을 떨 예정이란다. 또 넷플릭스는 내년쯤 한국에서도 직접 서비스를 할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은 콘텐츠를 소화하는 ‘플랫폼’을 둘러싼 온갖 진영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게 달아오르고 있는지도 보여주지만 전통적인 시청자의 개념이 사라지는 추세도 엿볼 수 있게 한다.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시리즈의 시청률은 기존 시스템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가장 뜨거운 ‘관심’의 대상으로 손꼽힌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까지 가장 강도 높고도 호의적인 관심을 받은 토종 대중문화 콘텐츠는 아마도 <미생>이 아니었을까 싶다. 윤희태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시청률 1%대에서 시작해 8%대로 막을 내리며 승승장구했는데, 그렇더라도 케이블 TV의 한계가 발목을 잡았는지 두 자릿수를 돌파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체감 효과는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미생의 성공 비결은 잘 알려져 있듯이 엉뚱한 리브라인이나 무리한 설정을 가미해 스토리라인을 훼손하는 흔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원작의 진정성을 지키면서도 캐릭터에 세세한 생명력을 불어넣으면서 드라마적 효과를 살렸다는 점이다. 더 중요한 건 단지 드라마적 재미만 선사한 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취업, 직장 생활의 역학, 비정규직 문제를 상기시키고 우리네 삶을 곱씹어볼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사회적인 반향은 자연스럽게 커다란 화두를 만들어냈고, 남녀노소를 초월한 지지를 받았다. <미생>을 계기로 평소 남편들에게 챙겨주지 않았던 따뜻한 아침밥이라도 차려주고 술 마시고 귀가해도 ‘갈굼’을 덜 하게 됐다는 여성 시청자도 많았고, 외려 자신의 ‘현실’이 투영되는 듯해 차마 보지 못하겠다는 월급쟁이 남편들도 있었다.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소위 ‘88세대’는 실시간으로 열린 사이버 토론의 장을 펼치며 시청했다.

비보상자를 무색케 하는 대중 지성

대중문화 콘텐츠의 실질적인 인기를 말해주는 바로미터 중 하나는 출연 배우들의 CF 출연 횟수다. 단지 배경음처럼 TV를 켜놓고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청자들보다는 실제로 여론과 소비를 주도하는 시청자층에 통하는 인물과 콘텐츠에 투자해야 하는 광고주야말로 관심 경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부류 아니겠는가. <미생>에서 활약한 출연 배우들까지도 각종 광고에 활발히 등장하는 모습은 시청률보다는 관심의 크기와 농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물론 시청률 자체도 논의의 여지가 많은 것인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통합 시청률이라는 방식으로 시청률을 조사할 전망이다.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스마트폰, PC, 태블릿 PC 등 소위 ‘N스크린’을 아우르는 시청률과 다시보기(VOD)까지 합산하는 조사 방식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는 시범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인 10명당 3명이 TV가 아닌 N스크린으로 방송을 보고 있다는 방통위 자체 조사 결과도 이 같은 의지를 진작시킨 요소였던 듯하다. 어쨌거나 이런 변화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높은 듯 보인다. 관심의 축수를 뺀 콘텐츠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챙겨 보거나 때로는 이슈 메이킹에 나설 정도로 능동적이기까지 한 시청자들의 요구를 좀 더 반영하면 아무래도 보다 질 높고 다양한 콘텐츠를 양산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인의 역할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가능한 한 재미있게 만드는 겁니다.” 최근 방한한 철학자이자 작가 알랭 드 보통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건 예술가의 일처럼 어렵다고 부연했는데, 요즘은 목적인 이슈를 흥미롭게 버무리는 일부 대중문화 콘텐츠가 그런 역할을 오히려 잘해내는 경우가 눈에 띄는 듯하다. 또 수용자들의 열띤 호응과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기업 드라마나 검찰청을 무대로 하는 수사 드라마의 경우, 주제나 서사 구조가 꽤나 복잡해 높은 이해도는 물론 능동적인 탐구 자세를 요하는 데도 말이다. 이처럼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보노라면 (비보상자의 역습)이라는 책에서 많은 이들에게 무사당했던 대중문화는 저질, 통속이라고 무시하는 연예물을 통해 아주 조금씩 우리 뇌를 명민하게 만들고 있다는 저자의 주장이 꽤 설득력 있게 들린다. 앞으로는 사람들 ‘비보상자’에 빠지게 만드는 미약처럼 단순하고 유치한 작품이 잘 통하리라고 생각하는 콘텐츠 제작자야말로 바보 신세가 될지도 모르겠다. 사실 ‘선택권이’ 더없이 풍부해진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희함을 파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보처럼’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에만 그런 콘텐츠를 일부러 벗 삼거나 접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배경음으로 놔두는 것일 뿐, 정말로 의미 있는 관심을 두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이데이고성연**



SWAROVSKI.COM



Miranda Kerr


SWAROVSKI

Brilliant time

작은 반짝임이 전하는 섬세한 속삭임,
손목을 감싸는 무브먼트의 두근거림이 완성하는
시간의 예술.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 바세르 론스틴 1972 캠페인 스톱 1972년 첫선을 보인 디자인이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만큼 모던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클래식. 비대칭형 디자인은 뛰어난 손목을 표현하는 데 제각각에 존칭한 해인 1972년에 프랑크 영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부드러운 실크를 빌트업이 채운 3백91개의 다이아몬드. 화이트 옐로게이티 스트랩이 순수한 아름다움을 완성한다. 5천만원대, 문의 02-3446-0088

브레게 브리 콜리르 하이 주얼리 워치 12.56캐럿의 움직임은 바케트 컷 다이아몬드가 다이얼 주위를 감싸고 춤추게 스노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다이얼을 빛내는, 뛰어난 아름다움을 지닌 주얼리 워치다. 블랙 사틴 스톱 애플을 매치해 궁극의 클래식한 매력을 선보인다. 셀프오일링 기계식 무브먼트를 장착해 시계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가격 미정, 문의 02-3149-9551

오메가 레이디매직 여성스러움의 상징인 마더오브펄을 워치 전체에 매치한 독특한 디자인의 워치. 다이얼과 브레이슬릿 전체에 영롱한 화이트 컬러의 자개를 사용했다. 34mm 다이얼 사이즈에 뛰어난 안정성을 자랑하는 코-액시얼 무브먼트 8520을 탑재했다. 8천만원대, 문의 02-511-5797

카르띠에 롱드 루이 카르띠에 XL 주얼리 워치 생물을 흠뻑려놓은 듯 다이얼과 베젤 전체를 파베 세팅한 다이얼에 2개의 동심원이 매력적인 구조를 띠는 카르띠에의 대표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워치. 10시 방향에 카르띠에 로고가 새겨진 스몰 세컨즈 다이얼이 리듬감을 선사한다. 매뉴얼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 칼리버 9754MC를 장착했다. 9천만원대, 문의 1566-7277

오메가 피제 레이디 로열 오크 오프쇼어 크로노그래프 팔각형 베젤의 브랜드 시그니처 디자인에 화이트 라바라는 새로운 소재를 매치해 드라마틱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37mm 케이스에 총 1.25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32개를 세팅해 우아하다. 가이에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갖춘 오토매틱 칼리버 2385를 탑재해 정확성을 높였다. 5천만원대, 문의 02-3449-5917

해리 윈스턴 프리미어 라지 크로노그래프 주얼리 하우스로 명성 높은 해리 윈스턴의 정교한 장식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이코닉한 디자인. 1989년 처음 론칭한 해리 윈스턴의 첫 번째 타임피스로 청아하고 기발한 세팅 기법을 사용했다. 독특한 무드의 브라운 컬러 타이탄 마더오브펄은 매력적인 그레이 컬러를 대담고 정교한 다이아몬드 세팅이 화려함을 더한다. 6천만원대, 문의 02-540-1356 에디터 배미진



DIAMOND FLOWER BROOCH
FEATURING A RARE 8.97CT PINK DIAMOND AND
A 38.13CT D FLAWLESS DIAMOND DROP

GRAFF

THE MOST FABULOUS JEWELS IN THE WORLD

THE SHILLA HOTEL +82 2 2256 6810

WWW.GRAFFDIAMONDS.COM

deluxe Beauty

진귀한 원료와 세심한 공정, 놀라운 과학이 탄생시킨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제품은 피부에 긴 생명력을 부여한다. 소량을 꾸준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매력적인 피부로 만들어주는 초고가 안티에이징 뷰티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플레드보 보에 시나티프 크림** 초고가 크림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와 텍스처, 향기, 발림성 등 모든 측면에서 진중한 럭셔리 의 진수를 보여준 시나티프 크림. 가격 논란에도 국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고, 기존 플레드보 보에의 VIP는 물론 에디터와 뷰티 전문가들에게도 인공반은 효과 높은 안티에이징 크림이다. 바르자마자 촉촉하게 스며드는 텍스처와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피부를 근본적으로 정화하는 기술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높은 만족감을 선사한다. 마백과 주름 개선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40ml 1백60만 원대, 문의 080-564-7700

샤넬 수블리마지 레센스 샤넬의 프리미엄 라인인 수블리마지 컬렉션 중 빛과 피부 활성화에 중점을 둔 안티에이징 세럼. 8월리아 골드 플라워 성분을 담아 피부 세포를 정화하고 자연적인 독소 제거 과정을 활성화해 건조와 잔주름, 광채 개선에 도움을 준다. 피부 표면 디톡스에도 효과적이다. 샤넬 수블리마지 라인인 텍스처가 고급스럽기로 유명인데, 이 제품 역시 피부에 녹아들 듯 스킨 같은 재질이 인상적이다. 30ml 51만 원, 문의 080-332-2700

리프레이 벨루라 크림 플레타늄 레어 플레타늄 성분을 담은 이 크림은 처음 출시 하자마자 1백만 원이 훌쩍 넘는 높은 가격에도 중성도 높은 리프레이 고객들이 주저 없이 구매해 모두들 놀라게 했던 제품이다. 리프레이는 순수한 플레타늄을 화정물에 담아낸데, 보습과 피부 보호 효과, 노화 방지, 필수 영양 성분의 흡수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깊은 주름과 표정 주름에도 효과적이라는 평이다. 50ml 1백40만 원대, 문의 080-511-6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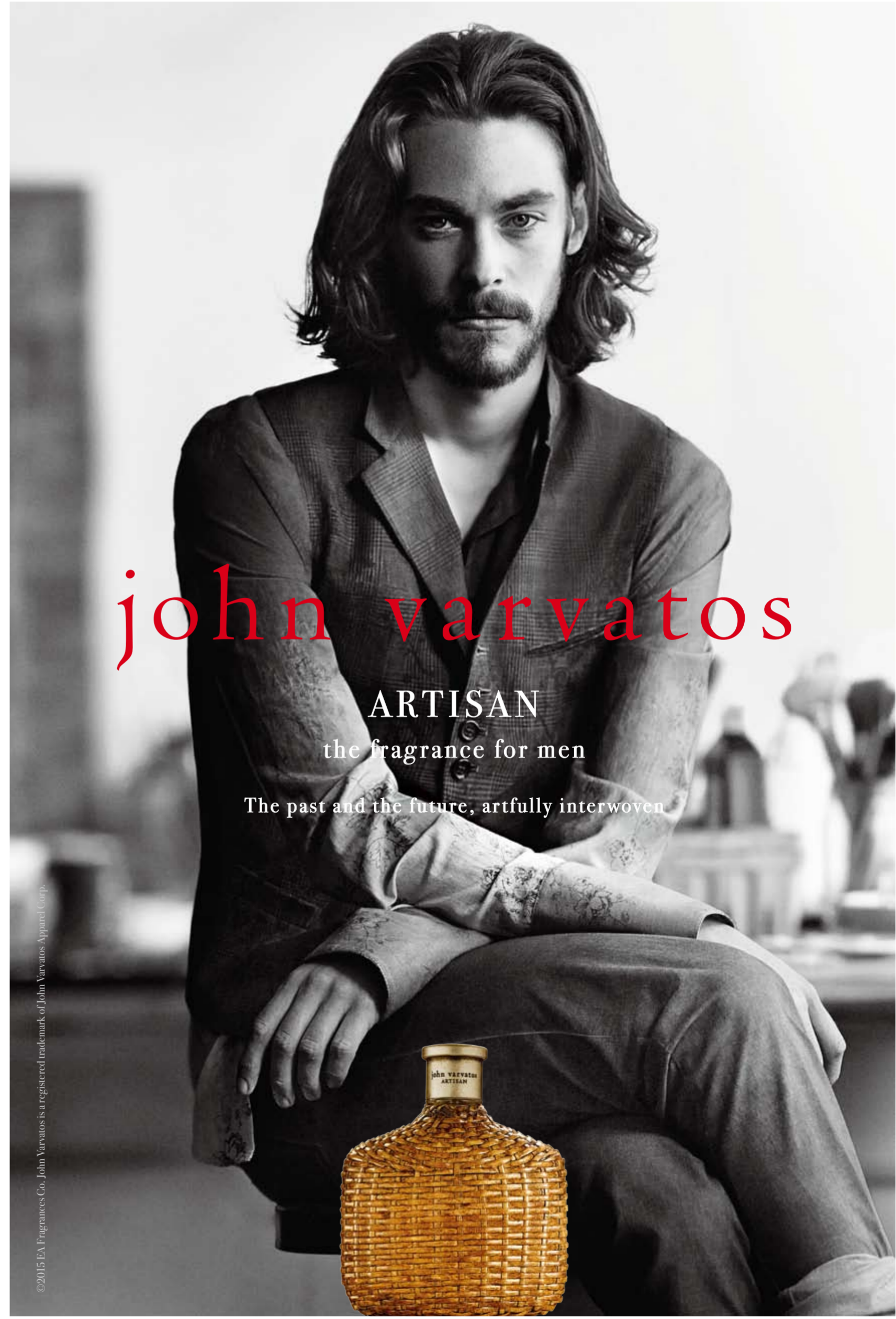
디올 로드리 라 큐어 국내에 1백 세트 한정으로 입고된 아름다운 디자인의 디올 안티에이징 에센스. 디올은 기존에 최고급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사토 디엘의 포도나무 수액으로 만든 로드리라는 럭셔리 안티에이징 라인을 선보였는데, 이 제

품은 로드리 중에서도 최상급 컬렉션이다. 디올 하우스 아틀리에에서 디자인한 고유 날씨가 새겨진 제롬 3개의 마사지를 돕는 애플라게티 2개가 함께 들어 있다. 2013년 빈티지의 사토 디엘 포도 수액을 담아 그 어떤 곳에서도 만듦볼 수 없는 진귀한 제품이다. 25mlX3 2백30만 원, 문의 02-3438-9631

에스티 로더 라-뉴트리브 다이아몬드 듀얼 인퓨전 두 가지 재질이 펌프하는 순간 함께 어우러져 안티에이징 활성 성분을 극대화하는 듀얼 보습 제품. 화장품 원료로 잘 사용하지 않는 최고의 생체로인 진귀한 블랙 트러플 성분이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선사한다. 블랙 트러플은 다 자라기까지 5~20에서 10~30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도 최상급 트러플만 생분해 원료로 사용한다. 에스티 로더의 오랜 역사를 담은 라-뉴트리브 라인의 신제품인 만큼 기존 고객들의 호응도가 높다. 부드럽게 피부에 스며들고 어떤 제품과 함께 사용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매력적인 제품이다. 25ml 52만 원대, 문의 02-3440-2772

경향 골드 오가드 임페리얼 데일리 앰플 전성적인 안티에이징 라인인 경향의 오가드 컬렉션 중 가장 빠르고 정확한 효과를 전달하는 안티에이징 앰플. 손상된 세포를 찾아 세포 에너지를 충전한다는 원리로 항아 효과가 뛰어난 골드 오가드를 기존 오가드 임페리얼 분자 추출물에 더해 확실한 항산화 효과를 선사한다. 30ml 69만 원대, 문의 080-343-9500

아모레퍼시픽 타임레스포스 스킨 리뉴얼 크림 한번 사용하면 중독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 여성들의 피부 단면에 꼭 맞아야 디올과 리프레이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크림이다. 확실한 항산화 효과를 지닌 첫물 녹차 성분을 주원료로 한다. 첫물 녹차는 제주도에서 매년 4월에만 수확할 수 있는데, 겨울 동안 응집된 녹차의 유용 성분을 농축해서 담았다. 10년 넘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제품인 만큼 믿음을 줘스럽다. 50ml 48만 원, 문의 080-023-5454 에디터 배미진



john varvatos

ARTISAN
the fragrance for men
The past and the future, artfully interwoven

©2015 EA Fragrances Co. John Varvatos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John Varvatos Apparel Corp.

Sweet match

단 한 번뿐인 웨딩 데이, 화사하게 빛나는 신부만큼이나 멋스럽게 꾸미는 것도 신랑이 갖춰야 할 '결혼의 기술'이다. 간단하면서도 센스 있게 멋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셔츠와 타이를 잘 매치하는 것. 신랑의 스타일을 한껏 살릴 셔츠와 타이의 매칭 공식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클래식한 스트라이프 패턴이 감각적인 블루 셔츠 54만8천원, 도트 패턴이 차분한 무드를 자아내는 타이 21만8천원 모두 **밀프 로렌 블랙 라벨**.



핑크 컬러가 발랄함을 더하는 강연 체크 셔츠 80만원, 봄날의 신사에게 잘 어울리는 체크 패턴 실크 타이 32만원 모두 **툴 포드**.



네이비와 화이트 컬러의 조화가 깔끔한 인상을 주는 도트 셔츠 1백4만5천원, 사선 스트라이프 무늬와 슬림한 실루엣이 세련된 타이 19만9천원 모두 **생로랑**.



기분까지 신뜻하게 만드는 맑은 하늘색의 화이트 컬러 셔츠 73만원 **카본**, 빈번적인 골프채 모양 패턴이 진중하고 지적인 무드를 더하는 타이 20만2천원 **에르메스**.



그린 컬러와 팬시 프린트의 조화가 젊은 감성을 전하는 퓨어 포폴린 소재의 셔츠 59만2천원, 옐로 바탕에 보타니컬 패턴의 실크 타이 25만원 모두 **에르메스립도 제너**.



진정한 플리워 패턴의 짙은 블루 컬러 셔츠 25만원 **오리앙 by 분더삼**, 실크 소재에 기하학적인 무늬를 프린트한 타이 19만원 **기브라렐 by 분더삼**.



활기찬 인상을 주는 도트 패턴의 화이트 셔츠 40만1천원, 차분한 톤의 보색 패턴 대비가 인상적인 메다글리오니 프린트의 실크 소재 타이 20만2천원 **프리다**.



차분한 그레이 컬러의 강연 체크 셔츠 73만원, 대담하고 화려한 패턴의 문양의 실크 타이 43만원 모두 **카본**.



화이트 컬러와 블루 스트라이프 패턴이 우아한 셔츠 52만5천원, 상징적인 GG 로고 패턴이 럭셔리한 핑크 실크 타이 25만원 모두 **구찌**, 인턴 에디터 **김수경**

스타일링: 유영정, 이나영, 박미



TISSOT HERITAGE NAVIGATOR NUMBERED EDITION. AUTOMATIC MOVEMENT, OFFICIALLY CHRONOMETER-CERTIFIED BY THE COSC (CONTRÔLE OFFICIEL SUISSE DES CHRONOMÈTRES), 24 TIME ZONES, 316L STAINLESS STEEL CASE AND WATER RESISTANCE UP TO 3 BAR (30 M/ 100 FT). **INNOVATORS BY TRADITION.**

TISSOT.KR

티쏘 스타일리쉬 카운터

신세계 센트럴시티 02-6282-1040 현대 무역센터 02-3467-8795 AK 분당 031-8023-2108
신세계 인천 032-430-2566 AK&수원점 031-240-1989 신세계 센텀시티 051-745-1201



LEGENDARY SWISS WATCHES SINCE 1853



Bridal perfume

매혹적인 향기는 신부를 더욱 빛나게 하고, 아름다운 웨딩의 순간을 황홀경으로 이끈다. 살결에 스민 섬세한 아로마가 남긴 잊을 수 없는 신부의 초상.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라다 캔디 로 오데 토일렛** 달콤한 향기가 신부의 사랑스러움을 극대화하는 향수. 캔디라는 이름에 걸맞게 달콤하면서도 선수익한 향을 담았는데, 화이트 머스크, 벤조인, 캐리멜 등 세 가지 향의 앙상블이 있었다. 시트러스 향과 오렌지향 플라워 향을 살짝 가미해 우아하면서도 활기찬 여성에게서 느껴질 것 같은 싱그러움 향이 나는 것도 매력적이다. 80ml 13만3천원, 문의 02-3443-5050

불가리 라벤네 아메리카나 불가리 하이 주얼리를 모티브로 한 하이엔드 퍼퓸. 불가리의 가장 아름다운 여섯 가지 쟁수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라벤네 컬렉션 중 사랑과 기쁨의 보석인 투르말린을 표현한 향수다. 밝고 싱그러운 채리 향으로 시종해 여성스러운 로즈 향이 아이치며 우드와 머스크 향이 매혹적인 분위기를 더한다. 100ml 43만5천원, 문의 080-990-8989

에트로 자카드 봄 햇살이 가득한 비밀 정원을 떠오르게 하는 플로럴 파우더리 계열의 향수. 은은한 베르가모트 향에서 시작해 화이트 플로럴 계열의 알랑요린, 재스민 향으로 이어진 후 세련된 바이올렛과 머스크 향이 그 뒤를 잇는다. 살결 가득한 허니문을 앞둔 신부에게 잘 어울리는 향이다. 100ml 16만5천원, 문의 02-3443-5050

디올 뉴룩 여성의 실루엣을 강조한 디올 하우스의 의상처럼 여성의 관능미를 극대화하는 마법의 향수. 로즈, 아이리스, 재스민 앙상블로 이루어진 풍부한 플로럴 향과 핑크 페퍼민트, 블랙 페퍼민트의 스파이시하면서도 유혹적인 향이 아우라였다. 125ml 31만9천원, 문의 080-342-9500

니콜라이 로즈 피보인 조화집계의 명문가인 니콜라이의 프랑스 퍼퓸어 페트리야드 니콜라이가 문정향 향수. 로즈와 피오니로 가득한 조화들의 푸른 정원을 한 병에 담은 플로럴 계열의 향수가 특징이다. 프레시한 라즈베리 향으로 시작해 로즈와 피오니의 풍부한 향이 이어진다. 우디와 머스크, 발사의 향으로 마무리되어 귀족적인 느낌을 준다. 100ml 18만5천원, 문의 080-547-7000

샤넬 레 엑스클루시브 드 샤넬 저지 샤넬이 남성의 니트 옷감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여성 의상을 창조해낸 데서 영감을 얻은 라벤네 계열의 향수. 라벤네의 깊은 향기에 바닐라 향을 더해 풍부하고 관능적인 플로럴 향을 이룬다. 깊고 풍부한 향이 특징인 샤넬의 레 엑스클루시브 라인에 향수답게 한 번의 터치만으로 우아한 꽃 향이 온몸을 감싸며 은은하게 지속된다. 75ml 21만원, 문의 080-332-2700

에스티 로더 모던 뮤즈 오드 퍼퓸 풍부한 플로럴 우디 향이 부드러운, 여성스러움, 당당함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하는 향수. 우아한 스파클링 재스민의 플로럴 향과 그에 대조적으로 관능적인 우디 향이 아우러진 듀얼-임프렉션 구조가 모던한 여성의 향기를 지어낸다. 똑 같고도 당당한 매력을 갖춘 신부에게 추천한다. 50ml 11만5천원, 문의 02-3440-2772

애틀킨슨 칸텔포라리 컬렉션 로즈 인 윈드팬 드 오드 퍼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대한 찬사로 탄생한 동화적인 향수. 동화 속 세계에 대한 예찬을 담은 민들레, 블랙 커먼 트와 재로늄, 크리스탈 앵버와 로즈를 더해 신비로운 향기를 완성했다. 100ml 23만5천원, 문의 080-800-8809

장 파루 조이 오드 트윙렛 포 우먼 부케를 한 다발 받은 듯 풍부한 장미 향이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향수. 디자이너 장 파루가 1929년 대중향을 낚는 사람들의 우울함을 달래고자 '환희'라고 이름 지은 향수다. 이름에 걸맞게 재스민과 장미를 아끼지 않고 응축해 만들어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향기'로 불리는 민들레 특별한 웨딩 데이에 더욱 잘 어울린다. 75ml 15만5천원, 문의 02-3443-5050 인터넷 에디터 김수경

Mercedes-Benz Club.

A perfume for the new generation.



INCC - Licensee of Daimler AG



Show case

지난 시즌에는 미니 백과 함께 작고 얇은 지갑이 유행했지만, 올해는 아예 클러치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장지갑이 대세다. 화려한 컬러의 제품부터 손목 스트랩이나 슬더 체인으로 실용성을 더한 제품까지, 포인트 액세서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지갑의 변신은 무죄.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AERBIAE 유한정 011A1E 0108

(맨 위 나무 왼쪽부터) 슬더 체인이 포함되어 미니 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화려한 컬러감의 파인 지갑 1백52만원 **지미추**, 끈이 봉투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 감각적인 지갑 69만원 **클로에**.

(중앙 나무 왼쪽부터) 레오파드 패턴의 숏커와 브랜드를 상징하는 사자형 버클의 조화가 멋스러운 지갑 가격 미정 **로저 비비에**, 메탈릭한 브론즈 컬러가 고급스러운 지퍼형 지갑 88만원 **랑방**, 손목 스트랩이 부착되어 있어 휴대가 간편한 스티드 장식의 레드 지갑 83만원 **발렌티노**.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지퍼뿐만 아니라 작은 거울, 린스틱 정도를 수납할 수 있는 모던한 디자인의 클러치 겸용 지갑 94만원 **셀린느**, 개성 있는 버클 장식과 예로 컬러 단가가 포인트인 모노그램 지갑 1백50만원대 **루이 비통**,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디자인의 블루 & 퍼플 지갑 1백30만원 **디올**, 에디터 권유진

클로에 02-6905-3670 **지미추** 02-3443-9469 **로저 비비에** 02-6905-3370 **랑방** 02-6905-3582 **발렌티노** 02-543-5125 **셀린느** 02-540-0486 **디올** 02-513-3232 **루이 비통** 02-3432-1854

투아렉이 묻는다

당신의 SUV는 증명할 수 있는가?



가장 당당하게 SUV의 자격을 말한다

퍼포먼스의 극한에서 프리미엄의 최상까지. 죽음의 레이스라 불리는 다카르 랠리를 3년 연속 정복하고 155톤의 여객기를 끌어 보이며 해발 6,080m 칠레 오요스 델 살라도 등반 성공으로 기네스 기록을 다시 세운 투아렉은 지금까지 세상 앞에 그 위력을 가장 당당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폭스바겐의 혁신이 더해진 투아렉과 함께 비교 불가한 프리미엄 드라이빙을 만끽하십시오.

Confidence Unequaled. The new Touareg



Das Auto.

[전시장] **대치** 02 564 9800 **서초** 02 588 3434 **신사** 02 516 0033 **한남** 02 747 4300 **일구정** 02 512 0040 **양천** 02 3660 9999 **역삼** 02 553 6733 **송파** 02 6958 0800 **강북** 02 320 9630 **마포** 02 320 9600 **방배** 02 595 0070 **분당** 031 760 1800 **일산** 031 904 4400 **수원** 031 284 3030 **인천** 032 471 6100 **안양** 031 396 0801 **판교** 031 696 0100 **부산** 051 611 5500 **해운대** 051 995 5500 **대구** 053 767 1900 **대전** 042 862 9944 **유성** 042 334 9944 **광주** 062 351 9500 **청주** 043 223 9944 **창원** 055 245 7788 **전주** 063 213 9500 **원주** 033 737 6500 **천안** 041 573 9993 **재주** 064 744 9200 **군산** 063 451 8500 **춘천** 033 244 6400 **포항** 054 249 5000 [**차종 및 표준 연비**] **Touareg V6 3.0 TDI BMT R-Line** (자동차 연비) 티트로닉, 배기량 296cc, 공차중량 2380kg, 복합CO2 배출량 185g/km, 복합연비 10.9km/l (도심연비 9.9km/l, 고속도로연비 12.3km/l), 4등급 **Touareg V6 3.0 TDI BMT Premium** (자동차 연비) 티트로닉, 배기량 296cc, 공차중량 2380kg, 복합CO2 배출량 185g/km, 복합연비 10.9km/l (도심연비 9.9km/l, 고속도로연비 12.3km/l), 4등급 **Touareg V6 3.0 TDI BMT** (자동차 연비) 티트로닉, 배기량 296cc, 공차중량 2380kg, 복합CO2 배출량 185g/km, 복합연비 10.9km/l (도심연비 9.9km/l, 고속도로연비 12.3km/l), 4등급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행위, 차량적재량, 기상조건, 온도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Elegant Solitaire Rings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소용돌이치는 우아한 곡선을 표현한 트리니티 루반 솔리테어 링 1.147캐럿 기준 6천만원대, 마이크로 파베 세팅 기법으로 다이아몬드를 더욱 출중하게 세팅한 가르피에 솔리테어 링 1.31캐럿 기준 4천8백만원대 모두 **가르피에**, 물방울 모양의 듀드람 컬렉션 링 0.53캐럿 기준 6백만원대 **오메가**, 핑크 골드 느낌의 사쿠라 골드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라벨로 솔리테어 링 1캐럿 기준 4천만원대 **타사키**, 동백꽃의 아름다운 곡선에서 영감을 얻은 까멜리아 솔리테어 링 0.5캐럿 기준 1천만원대 **샤넬 화인주얼리**, 6개의 프롱이 다이아몬드를 밴드 위로 완전히 둘러 아름다운 광채를 뽐내는 티파니 세팅 링 1.59캐럿 기준 4천8백만원대 **티파니**, 우아한 마카즈 컷 다이아몬드와 두 줄로 이뤄진 밴드 디자인이 특별한 이터널 그레이스 솔리테어 링 0.5캐럿 기준 2천만원대 **부세온**, 2.01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양쪽에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더한 프로미스 세팅 링 가격 미정 **그라프**, 브릴리언트 쿠션 컷 링을 중심으로 양쪽에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각각 8개씩 비드 세팅한 노보 링 1.01캐럿 기준 4천3백만원대 **티파니**.

* 다이아몬드 주얼리는 동일한 개럿일지라도 다이아몬드의 투명도와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reaming Wedding

품위와 취향이 느껴지는 웨딩 링, 남다른 안목을 은근히 드러내는 워치 컬렉션은 웨딩의 꽃이다. 커팅이 독특한 다이아몬드 링부터 화려하고 대담한 디자인의 주얼리, 담백하고도 실용적인 디자인의 커플 워치와 캐주얼하면서도 멋스러운 세컨드 워치까지, <스타일 조선클럽>가 제안하는 지금 가장 멋진 웨딩을 위한 주얼리 &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Best Couple Watches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르메스 이소 컬렉션** 만안정 손잡이를 연상케 하는 시그니처 원형 케이스가 돋보이는 클래식한 워치.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탑재한 41mm의 남성 스틸 워치는 매트한 질감의 블랙 악어 가죽 스트랩으로 모던하면서도 강렬함을 표현했다. 쿼츠 무브먼트를 탑재해 가벼운 28mm 여성 스틸 워치는 화이트 자개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세팅, 부드러운 블랙 악어 가죽 스트랩을 더했다. 남성 워치 5백만원대, 여성 워치 1천만원대. **태그호이어 까레라 페어 워치** 심플하면서도 클래식한 뉴 까레라 레이디, 남성을 위한 까레라 칼리버 1887 크로노그래프 워치는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다이얼에 골드 핸즈를 매치했다. 합리적인 가격대가 매력적이다. 여성 워치 4백10만원, 남성 워치 7백77만원. **몽블랑 보헤 스틸 다이아 & 헤리티지 데이트 오토매틱** 브랜드 가치 대비 가장 매력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는 몽블랑은 워딩 워치 일순위에 꼽히는 브랜드다. 스틸 소재의 보헤 여성 컬렉션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에도 1천만원 미만의 가격대로 경쟁력이 높다. 심플한 디자인의 남성 헤리티지 컬렉션 역시 클래식한 매력으로 어떤 남성에게나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다. 여성 워치 6백46만원, 남성 워치 5백75만원.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세드나 & 플루마** 오메가를 대표하는 워치이자 베스트셀러인 컨스텔레이션 커플 워치. 워딩 워치로 오랜 세월 각광받은 디자인이기에 평생 간직해야 하는 예물로 제격이다. 남성 워치인 세드나는 오메가만의 18K 세드나™ 골드를 사용한 최초의 시계로, 유니크한 로즈 골드 빛깔이 돋보인다. 여성 워치인 플루마 컬렉션은 라틴어로 '깃털'이라는 의미를 지닌 우아한 타원피스. 영롱한 빛을 발하는 자개 다이얼과 콜비네이션 브레이슬릿, 다이얼에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화려하고 여성스럽다. 남성 워치 2천5백만원대, 여성 워치 1천3백만원대.

Unique & Fancy Jewelry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사랑에 관한 꽃말을 지닌 팬시 꽃에서 영감을 받은 1.57캐럿 팬시 펜던트 네크리스 2천만원대 **부세론**, 로마숫자에서 모티브를 얻은 아틀라스 오픈 다이아몬드 로즈 골드 링 6백만원대 **타파니**, 별모티브 다이아몬드 장식의 화이트 세라믹 코스믹 드 샤넬 불랑 링 6백만원대, 다이아몬드를 스노 세팅한 원형 디자인의 메달리온 울트라 링 1천만원대 모두 **샤넬 화인주얼리**, 영화 <글레오파트라>의 주인공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영감을 얻어 독창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부채 모양의 다바 컬렉션 오닉스 링 1천만원대 **불가리**, 팬다가 골드 비즈 수송 장식을 얹어 물고 있는 대담한 디자인의 팬더 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2천9백만원대 **까르띠에**, 대담한 아치 형태와 부채 모티브 디자인으로 화려하고 우아한 다바의 모습을 재해석한 다바 컬렉션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8백만원대 **불가리**, 블랙 세라믹과 2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로 가브리엘 샤넬이 사랑한 동백꽃을 표현한 까멜리아 네크리스 5백만원대 **샤넬 화인주얼리**, 현대적인 감성을 지닌 원형 펜던트가 눈에 띄는 메트로 다이아몬드 펜던트 네크리스 9백만원대 **타파니**, 진주를 일렬로 배열한 18K 화이트 골드 바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블란스 파페 링 2천 2백만원대 **타사키**.



Men's Second Watches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몽블랑 스타 클래식 스틸** 얇은 베젤이 특징인 슬림한 스틸 케이스가 클래식한 39mm 남성 워치, 고유의 별 모양 엠블럼이 새겨진 세컨드 표시창, 화이트 다이얼에 심플하게 매치한 블루 핸드와 인덱스가 인상적이다. 4백10만원. **보에 메르시에 클립톤 오토매틱 아워** 과거 뮤지엄 타임피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41mm 사이즈의 오토매틱 워치, 유광과 무광이 조화를 이룬 원형 스틸 케이스와 브라운 컬러 악자족 스트랩의 조화가 클래식하다. 5백만원대. **오메가 씨마스터 플래닛 오션 크로노그래프 8211** 스타일리시한 다이얼 워치의 상징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크로노그래프 다이얼 워치, 600m 방수와 연회전 방지 베젤, 헬륨 방출 밸브 등 다이얼 워치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9백만원대. **해밀턴 재즈마스터 오토 크로노** 해밀턴의 베스트셀러인 재즈마스터 오토 크로노 라인 중 가장 최근 제품으로 세련된 네이비 컬러 다이얼이 포인트다. 60시간까지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독점 무브먼트인 H-21을 탑재했다. 2백만원대. **모리스 리크와르 클래식 크로노그래프 페이스 드 룬**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문페이스가 결합된 컴플리케이션 워치, 기능이 복잡한 시계지만 기본이 되는 시간 정보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시해 가독성을 높였다. 5백만원대. **불가리 옥토 솔로벨포** 원형과 사각형이 공존하는 강렬한 케이스 디자인의 스틸 & 화이트 골드 콤비 워치. 1천만원대.



Stylish Layering Rings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러브 컬렉션의 스크루 모티브와 함께 브라운 세라믹 밴드 포인트를 준 러브 링, 3개의 링이 한 세트로 7백만원대, 러브 컬렉션의 상징인 스크루 모티브에 핑크 사파이어를 세팅한 핑크 골드 러브 링 3백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3.11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와 핑크 다이아몬드의 조화가 사랑스러운 레가시 세팅 링 가격 미정 **그라프**, 다이아몬드 밴드를 포함해 본밴드를 상징하는 모티브의 밴드가 조화를 이룬 퍼트리 레 디안트 에디션 옐로 골드 링 1천만원대 **부세몬**, 오픈워크 기법으로 동백꽃을 모던하게 표현한 까르띠에 아이즈 오브 화이트 골드 링 5백만원대 **샤넬 화인주얼리**, 꽃잎을 연상케 하는 마키즈 컷 다이아몬드와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순차적으로 배열한 빅토리아 링 2천3백만원대, 섬세하게 새겨진 두 줄의 밧줄 모티브와 다이아몬드의 조화가 돋보이는 투 루우 로프 링 8백만원대, 불드한 밴드에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세팅한 메트로 파이프 로우 링 1천2백만원대 모두 **티파니**, 생김새 넘치는 잎 이삭 패턴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스피가 브라이덜 솔리더 어 링 1캐럿 기준 3천만원대, 밴드 라인을 따라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핑크 골드 이터니티 밴드 링 3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꽃봉오리를 연상케 하는 아코아 진주 사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인블롬 링 0.5캐럿 기준 1천5백만원대 **타사키**, 플라타늄에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까르띠에 웨딩 밴드 1천3백만원대 **까르띠에**.



Classic Men's Watches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까르띠에 발롱 블루 드 까르띠에 엑스트라 플랫 워치** 시그니처 워치인 발롱 블루를 세련된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18K 화이트 골드 워치, 케이스 두께가 반으로 줄어든 만큼 화려하게 얹어진 2.1mm의 무브먼트와 7.05mm의 케이스에서 진보된 기술을 엿볼 수 있다. 3천만원대. **몽블랑 헤리티지 문페이즈 골드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만년필 탄생 90주년을 기념하는 문페이즈 워치, 낮과 밤을 표시하는 문페이즈 기능을 적용해 완성도를 높였다. 1천8백만원대.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팔각형 베젤의 세련된 다이얼이 인상적인 오토매틱 워치, 완성도 높은 화려한 파나싱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다. 2천2백만원대. **워블로 클래식 퓨전 크로노그래프 링 골드** 워블로만의 독창성을 담은 18K 링 골드 케이스와 리버 위에 덧댄 엘리게이터 스텝의 조화에서 강인한 힘이 느껴지는 크로노그래프 워치. HUB1143 오토매틱 메카니컬 무브먼트로 42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4천만원대. **제니스 랩틴** 원저 시간당 3만6천 회 진동하는 전설적인 무브먼트인 엘 프리메로 400B 칼리버를 탑재한 컴플리케이션 워치. 간결한 다이얼 디자인 덕분에 날짜·월·요일로 이루어진 애플워치 캘린더를 쉽게 읽을 수 있다. 2천8백만원대. **크로노스위시 시라우스 빅 데이트** 기묘세 패턴을 새긴 다이얼과 작은 양파 모양 공두로 브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살린 스틸 워치. 12시 방향에 가독성이 뛰어난 날짜 표시 창을, 6시 방향에 40시간 파워 리저브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을 배치했다. 6백90만원.

Wedding Couple Bands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까르띠에 저스트 앵 글루 커플링** 단순하고 평범한 뜻을 미학적으로 형상화한 핑크 골드 커플링, 밴드 링 2백만원대, 다이아몬드 링 4백만원대. **볼가리 세르펜티 컬렉션 커플링** 풍요, 자애, 불멸과 장수를 상징하는 뱀에게 영감을 받은 핑크 골드 워딩 밴드, 밴드 링 1백만원대, 다이아몬드 링 5백만원대. **샤넬 화인주얼리 울트라 커플링** 샤넬의 상징적인 컬러인 블랙과 화이트, 그리고 모던한 세라의 소재와 다이아몬드의 조화가 개성 있는 커플링, 블랙 밴드 링 3백만원대, 화이트 밴드 링 5백만원대. **타사키 피아노 커플링** 18K 시쿠라 골드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디자인한 커플링, 여성용 밴드 링 1백20만원대, 남성용 밴드 링 1백70만원대. **티파니 아틀라스 피어스트 커플링** 브랜드의 상징인 로마숫자 모티브가 특징인 컬렉션으로, 2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다. 각 1백만원대. **루시에 리본 커플링** 강하게 맺어진 두 사람의 인연의 끈을 형상화한 리본 모티브의 커플링, 다이아몬드 링 1백90만원대, 밴드 링 2백만원대. **부쉐론 포인트 드 디아망 플레타블 커플링** 브랜드의 전통이 깃든 작은 파라다드 패턴을 화이트 골드 밴드에 새긴 커플링, 특별한 커링 방식을 적용해 화려한 반짝임이 돋보인다. 각 2백만원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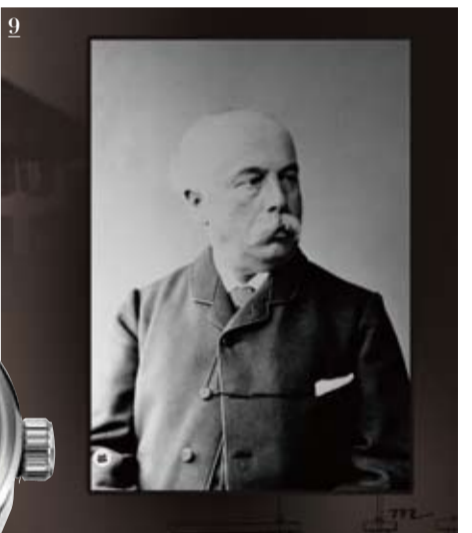
Brilliant Jewel Watches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파르미자니 갈파리스 마우라노스** 아치형을 기미한 사각형 로즈 골드 케이스에 마치 별을 흩뿌린 듯 세팅한 다이아몬드 장식이 신비로운 오토매틱 여성 워치, 6시 방향에 평범한 스물 세컨즈 디스플레이 대신 시간이 가면서 별이 움직이는 듯 표현한 스물 세컨즈를 배치했다. 5천9백만원. **오메가 레이디메틱** 자개 다이얼과 브레이슬릿으로 화려함을 부각한 레이디메틱 워치, 바케트 모양의 다이아몬드를 베젤에 세팅해 특별함을 더했다. 8천3백만원대. **까르띠에 탱크 아메리칸 미니 주얼리 워치** 탱크 아메리칸 워치 라인의 미니 사이즈 버전, 주얼리를 방불케 하는 화려한 스테이크 골드 채인 브레이슬릿과 베젤에 파베 세팅한 다이아몬드 장식이 매력적이다. 4천만원대. **블랑팡 우먼 레트로그레이드 스톤 세컨즈** 다양한 크기의 다이아몬드가 두 줄로 얹혀서 교차하는 독창적인 베젤 장식과 다이아몬드를 흩뿌린 자개 다이얼이 아름다운 레트로그레이드 워치, 6시 방향에 위치한 레트로그레이드 30 세컨즈 인디케이터는 여성 시계지만 파워풀한 기술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한다. 3천9백만원대. **샤넬 화인주얼리 까멜리아 브로드 워치** 아름답게 인발한 동백꽃 모티브의 케이스에 총 2,937점에 달하는 5백 5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주얼 워치, 고풍적인 블랙 사틴 브레이슬릿을 더해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했다. 6천만원대.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

부쉐론 02-3213-2246 티파니 02-547-9488 샤넬 화인주얼리 02-3442-0962 볼가리 02-2056-0172
 그라프 02-2256-6810 까르띠에 1566-7277 타사키 02-3461-5558 루시에 02-512-6914 오메가 02-511-5797
 몽블랑 02-2118-6053 워블로 02-540-1356 제나스 031-8023-2191 크로노스워스 02-310-1737 오데마 피게 02-6905-3717
 파르미자니 02-310-1737 블랑팡 02-6905-3367 에르메스 02-3448-0728 태그호이어 02-548-6020
 모리스 로크로와 02-3213-2248 해밀턴 02-3149-9593 보에 메르시에 02-2118-6225

Timeless glory

처음 들어보는 이름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시계 브랜드도 많지만, 태그호이어(TAG Heuer)는 국내에서 확실한 인지도를 쌓아온 품격 있는 워치 브랜드다. 최고급 제품만 만들어내는 기계식 시계업계에서 럭셔리함과 대중성을 함께 누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태그호이어는 두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스포티한 디자인의 남성 워치부터 클래식하고 대중적인 디자인의 여성 컬렉션까지 태그호이어의 매력적인 시계, 그중에서도 올해 새롭게 선보인 뉴 캐러라 레이디 컬렉션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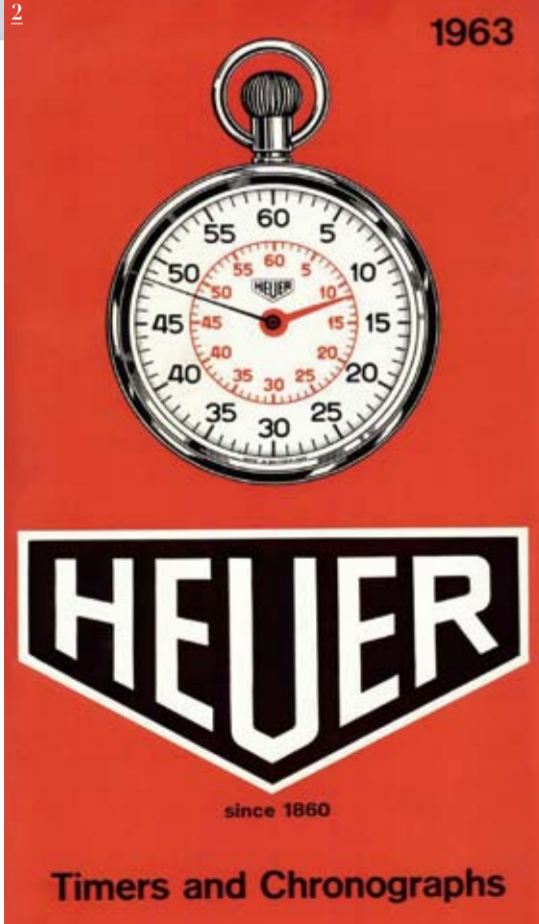


1 새롭게 선보인 태그호이어 뉴 캐러라 레이디 워치,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골드 컬러 모 델과 인덱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모델이며 다양한 디자인으로 출시됐다. 2 1963년 처음 탄생했을 당시 태그호이어의 광고 포스터,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강조한 모델로 호이아(Heuer) 라는 이름으로 데뷔했다. 3 전설적인 레이싱 경마인 캐러라 파나메리카나 헬리에서 이름을 따 온 캐러라 컬렉션. 4, 5 캐러라 칼리버 1887 헤리티지 크로노그래프 41mm 모델과 캐러라 레이 디 칼리버 9 28mm 다이아몬드 세팅 워치는 페어 워치로 손색이 없다. 6 세계적인 테니스 선 수 마리아 샤라포바는 캐러라 레이디 컬렉션의 디자인에 참여하기도 했다. 7 캐러라 칼리버 5 데이-데이트 41mm와 캐러라 레이디 칼리버 9 28mm를 매치한 페어 워치 컬렉션. 8 2010년 태그호이어의 기술력으로 완성한 무브먼트. 9 1860년 태그호이어의 전신인 호이어 그룹을 창 립한 에드워드 호이어. 10 블랙 다이얼을 매치한 캐러라 레이디 컬렉션. 11 마리아 샤라포바가 승리를 거둔 순간과 태그호이어의 가치를 더한 캐러라 레이디 워치의 광고 비주얼.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방수 케이스와 같은 레이싱을 위한 완벽한 워치, 크로노그래프 기능의 사용을 최대한 편리하게 고안한 완벽한 기계식 시계를 원했고, 이 로망이 시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캐러라' 를 탄생시킨 것이다.

타임리스 컬렉션, 뉴 캐러라 레이디

언뜻 보기에도 심플하지만 클래식한 디자인이 강점인 캐러라 컬렉션은 유행을 타지 않는 타임리스 디자인 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현재 브랜드 명예회장이자 창립자 에드워드 호이어의 손자인 잭 호이어는 시계의 외 관과 느낌은 우아함과 다이내믹함을 동시에 담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영감 의 원천을 찾던 중 건축과 미술에 관심을 가졌고, 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와 소재, 기술을 담은 캐러라 컬렉션 이 탄생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이후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온 캐러라 컬렉션에 여성용 시계가 등장한 것은 매우 신선한 일이다. 자연스럽게 캐러라 컬렉션에 남성 워치와 매치할 수 있는 페어 워치라는 새 로운 라인업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태그호이어의 아이코닉 디자인이기에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캐러라 남 성 워치 컬렉션과 뉴 레이디 컬렉션은 우아한 조화를 이룬다. 심플하고 현대적인 다이얼 디자인에 품격을 더했지만 지루하 지 않다. 이번 뉴 레이디 컬렉션에 큰 영감을 준 것은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이자 태그호이어의 스포츠 앰배서더 마리아 샤라 포바다. 이번 디자인에 함께 참여할 만큼 새로운 워치 탄생에 큰 공헌을 했다. 캐러라 뉴 레이디 컬렉션이 더욱 특별한 것은 태그호이어의 명성과 장인 정신을 여성들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탑재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여성 워치는 전자 기기로 구동하는 쿼츠 워치를 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도 와 완벽함을 추구하는 캐러라 컬렉션의 여성 워치에 걸맞은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더한 것이다. 손목에 착용했을 때 느껴지 는 기계식 시계의 미세한 진동은 뉴 캐러라 레이디 컬렉션이 선사하는 특별한 선물이다. 태그호이어가 지난 1백50년간 간 직해온 뛰어난 워치메이킹 기술을 페어 워치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멋진 일이다. 캐러라 레이디 28mm에 장착한 칼리버 9 오토매틱 무브먼트는 투명 백 케이스를 통해 그 움직임을 고스란히 볼 수 있다. 태그호이어가 긴 시간 개발한 뛰 어난 워치메이킹 기술을 담고 있으며 H 형태의 새로운 브레이슬릿은 착용감이 편안하고 폴리싱 역시 수준급이다. 불필요 한 장식보다는 기존 캐러라의 시원한 디자인을 강조해 가장 클래식한 소재로만 변화를 주었다. 다이아몬드와 머더오브펠 (자개 장식), 로즈 골드와 옐로 골드는 물론 스틸과 골드가 어우러진 콤비 워치 등 다양한 버전은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워치 역시 태그호이어의 캐러라에 매치하면 젊음과 생동감이 느껴진다. 특히 독특한 패턴의 아주라주 (azurage) 효과를 준 블랙 컬러 다이얼에 매치한 버전의 캐러라 레이디는 다른 브랜드에서 찾아보기 힘든 강렬함이 특징이 다. 워딩 워치, 그중에서도 기계식 시계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클래식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 평생 함께할 워치라고 생각하면 모던하고 심플하며 가치 있는 시계가 해당이다. 세련된 디자인에 품위를 더한 태그호이어의 뉴 캐러라 레이디 컬 렉션은 분명 좋은 선택이 되어줄 것이다. 문의 02-776-9018 에디터 배미연



스위스 메이드 워치의 가치와 대중성을 모두 갖춘 태그호이어

사진 속 아름다운 것들 사이에 화사하게 자태를 드러낸 워치가 이번에 소개할 태그호이어의 뉴 캐러라 레이 디 컬렉션(New Carrera Lady Collection)이다. 아마 시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태그호이어(TAG Heuer)라는 브랜드명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전 세계 공정의 가장 큰 전광판에서, 매거진의 광고와 신문 지면에서, 혹은 가까운 사람들의 예물 시계 브랜드 이름으로 한 번쯤은 접해보았을 정도로 유명하 다. 태그호이어는 1860년부터 스위스 상티미에(St. Imier)에서 창립자 에드워드 호이어가 탄생시킨 이후 긴 역사를 이어온 기계식 시계 브랜드로, 국내에서는 1980년대부터 이미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국내 진출 초기에는 고급 예물 시계 시장을 리드했고, 기계식 시계를 국내에서 대중화하는 데 가장 크게 공헌한 브랜드이기도 하다(여기서 기계식 시계란 전자시계, 즉 건전지를 포함하는 쿼츠 시계가 아닌 오로지 스위스 메이드의 기계식 장치만으로 구동하는, 별도의 동력이 필요 없 는 태엽과 시계 부품의 조화가 만들어내는 힘만으로 작동하는 워치를 말한다). 상당한 가격을 지불 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데다 스위스 메이드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기계식 시계 시장에서 대중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태그호이어는 일찍이 까다로 운 눈높이를 충족하며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캐머런 디아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같은 세 계적인 할리우드 배우를 앰배서더로 기용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펼쳐 꾸준히 인지도를 쌓아나갔다. 물론 가장 기본이 된 것은 매력적인 디자인과 확실한 기술력이다. 클래식하고 모던한 디자인은 물론 끊임 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탄생시킨 전문적인 고급 스포츠 워치 기능과 정밀한 크로노그래프 기능 을 담아 기록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

뛰어난 기술력과 창의적인 디자인의 만남

이번 컬렉션에서 소개하는, 태그호이어를 대표하는 캐러라 컬렉션이 바로 이 두 가지 매력을 가 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제품이다. 태그호이어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태그호이어를 구매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릴 워치 컬렉션인 캐러라는 1963년 첫선을 보였다. 탄생 스토 리도 매우 흥미로운데, 모터 레이싱의 열렬한 팬이었던 태그호이어의 명예 회장 잭 호이 어는 1950년대 전설적인 '캐러라 파나메리카나 랠리(Carrera Panamericana Rally)' 에서 영감을 얻어 캐러라 컬렉션을 발표했다. 레이싱에서 영감을 얻은 캐러라 컬렉션의 이름은 스페인어로 수준 높은 레이싱 경기를 칭하며 라틴어로는 승리를 의미한다. 창의적 인 컬렉션을 원했던 잭 호이어가 원하던 바로 그 이름인 것이다. 그는 가독성 높은 대명하고 시원한 디자인의 케이스와 격렬한 주행에도 끄떡없는 충격 방지 기능, 그리고 주행 중 일어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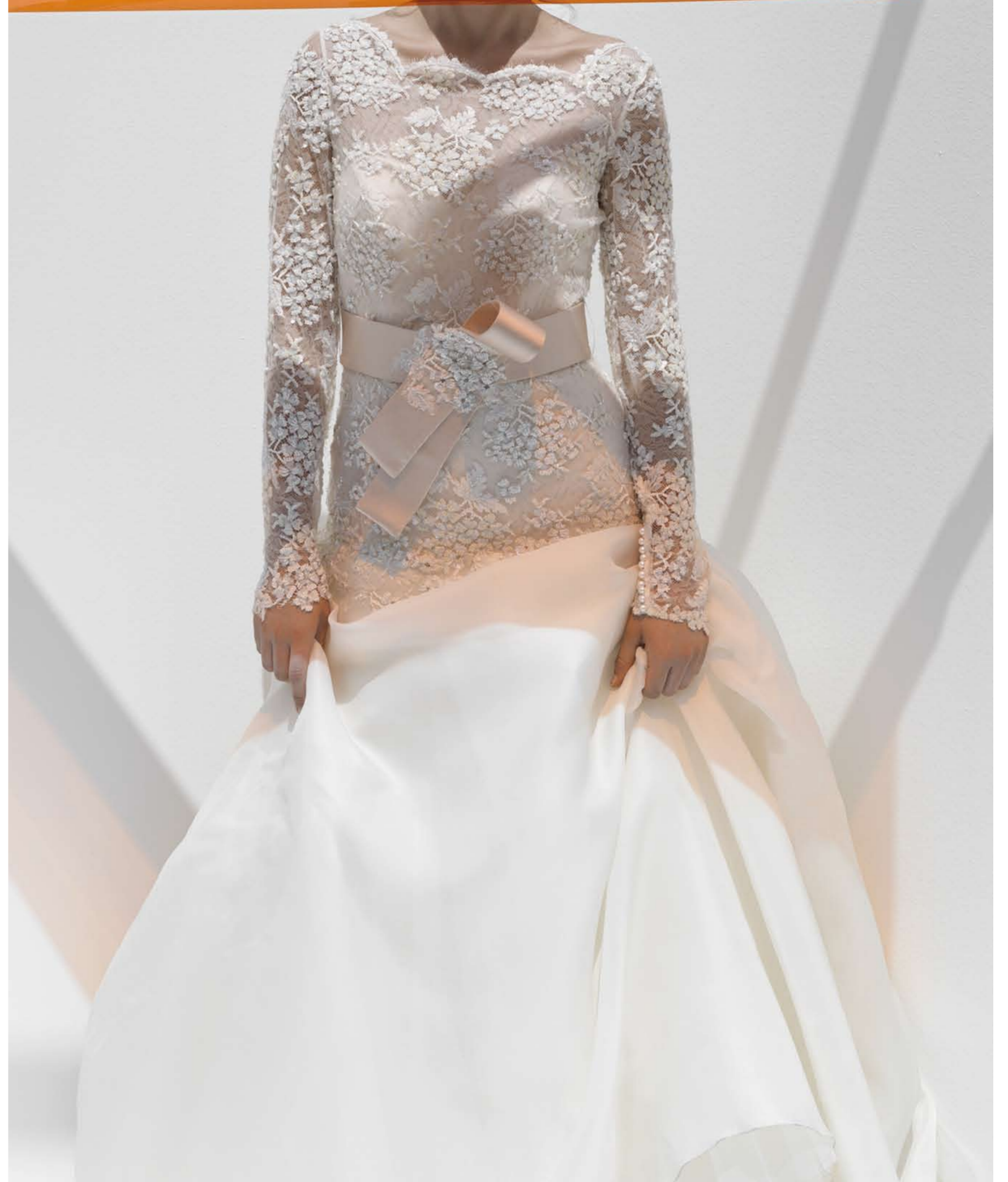


기하학적인 구성으로 접은 듯한
느낌을 주는 유니크한 실루엣의
숄더리스 실크 드레스.
사랑스러운 신부를 표현했다.
드레스 Peter Langner.

A Special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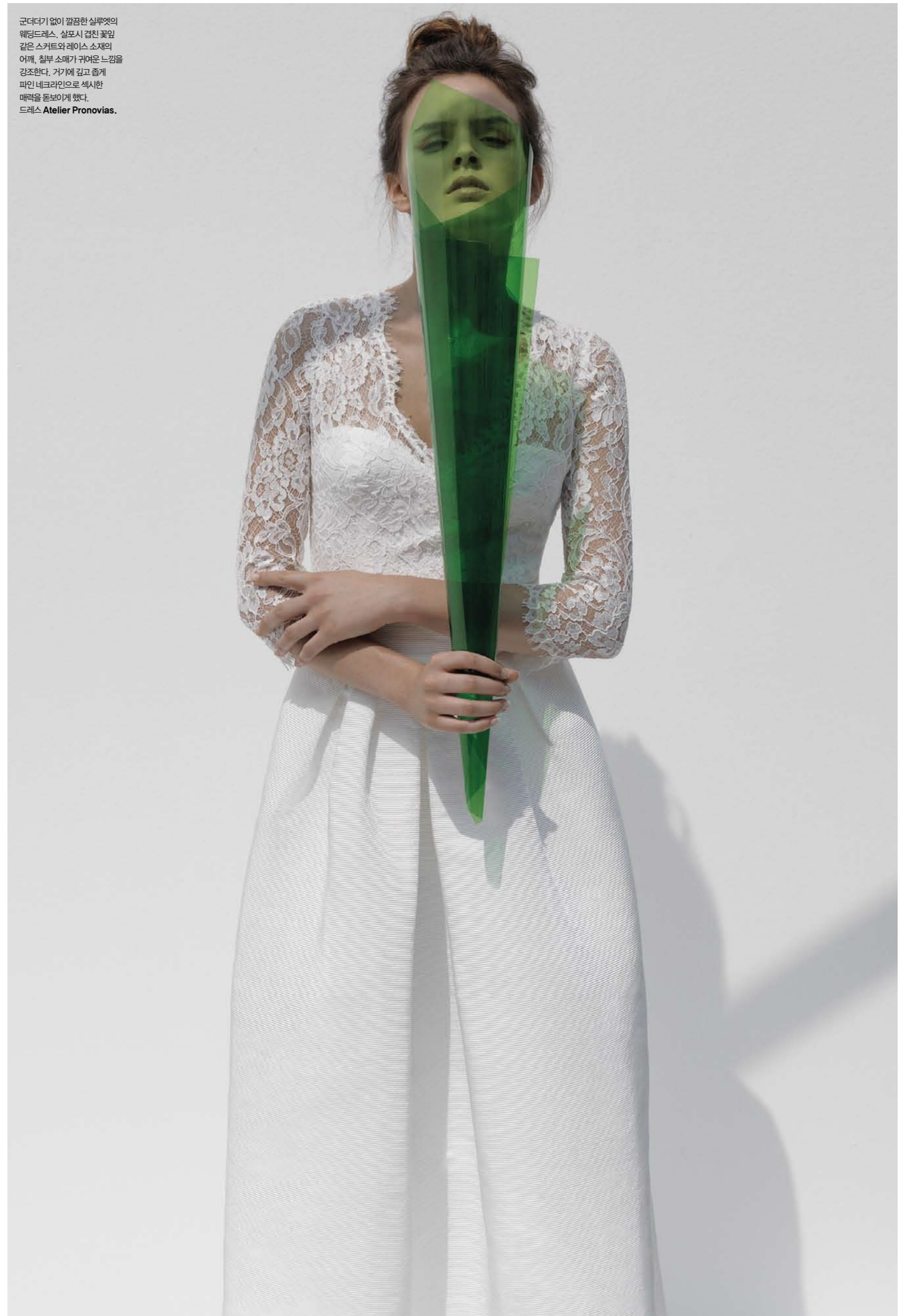
특별한 그날, 신부의 셀렘과 떨림을 섬세한
레이스와 사랑스러운 프릴 장식으로 표현한다.
장식은 단순하지만, 개성 있는 실루엣과 가벼운
소재의 레이어링으로 신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2015 S/S 웨딩드레스.

마치 한 송이 꽃을 표현한 듯한
드레스. 꽃잎 느낌의 네크라인과
손등을 살짝 덮는 소매 라인이
매혹적인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
보이는 섬세한 레이스로,
스커트는 오감자로 매치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드레스 Atelier Aimee
Montenapoleone.





볼륨감 있게 층층이 겹친 오간자와 레이스 스커트가 신부를 더욱 화사하게 표현하는 웨딩드레스. 야외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디자인이다. 베이지 컬러 핏프스
Christian Louboutin.
드레스 **Nicole 2015.**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실루엣의 웨딩드레스. 실포시 겹친 꽃잎 같은 스커트와 레이스 소재의 어깨, 칠부 소매가 귀여운 느낌을 강조한다. 가구에 깊고 좁게 파인 네크라인으로 섹시한 매력을 돋보이게 했다.
드레스 **Atelier Pronovias.**

늘씬한 라인을 강조하는
심플한 매력의 웨딩드레스.
허리선을 높인 엔피이어 실루엣이
귀족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허리의 꽃과 프릴 장식만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드레스 **Acquachiera**
Collection Milano.



대담한 프릴로 뒷부분을 장식한 프록
코트 타입 드레스. 어깨를 레이스로 처리하고
등을 과감하게 노출한 것이 포인트다.
드레스 **Elizabetta Polignano**.

헤어 **Franco Chessa**(W-M management)
메이크업 **Roman Gasser**(W-M management)
스타일리스트 **Flavia Galantini**
어시스턴트 **Francesca Ferretti**





콜롬비아 벨라 스파가
프롬리스 컬렉션 주얼 백
화이트 골드 버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최상의
럭셔리함을 느낄 수 있는
인어기증 미니 토트백,
19X21cm 483,000원,
문의 070-7130-9200



루이 비통 카뮈신 BB백 미니-업한 디자인으로
세련된 룩을 완성할 수 있는 신뜻한 옐로 컬러의
토트백, 탈착 가능한 스트랩이 포함되어 있다.
20X27cm 5백20만원대, 문의 02-3432-1854



밴디 트와주르 백 가장 인공에
화사한 옐로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 위트를 다한 토트백,
25X30, 5cm 3백19만원,
문의 02-2056-9023

Dear lady

결혼 절차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단. 그중 가장은
여자들의 위시 리스트를 여실히 보여주는 아이템이 아닐까. 리얼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럭셔리함의 극치를 느낄 수 있는 악어 가방부터 실용성과 트렌디한 요소를 갖춘 잇 백까지,
품격 있는 선택을 위한 예단 백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말프 로렌 컬렉션 스포트
리키 백 기존 아이콘인 리키
백을 유연한 실루엣으로
재해석한 숏어지거죽
토트백, 30, 5X27cm
2백80만원, 문의 02-
545-8200



구찌 레이다 락 백
구찌의 상징인 뱀부
손잡이와 자물쇠
장식이 돋보이는
럭셔리한 피아톤
토트백, 26, 5X23cm
4백56만원, 문의
1577-1921



에르메스 세르슈 미디 백
블랙 & 화이트 버클과 모던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숏대백,
15X25cm 1천만원대,
문의 02-544-7722

스타일링: 박건우, 이서영, 박혜미



엘브 브라운 백 마치 장미
꽃잎이 물들 듯 사랑스러운
로즈 컬러로 그래픽이 선한
스가죽 토트백, 23X28cm
5백90만원, 문의 02-
3449-5916 에디터 권유진



토즈 케이프 백 민트에서
영감을 받은 부드러운
세이프와 플라워 패턴이
개성 있는 스가죽 토트백,
28X37cm 2백만원대,
문의 02-3438-6008



버버리 베너 백 가장 옆면에 버버리의
시그니처인 미디엄 하우스 체크 디테일을
다한 알다베리 컬러 토트백, 33X25cm
2백10만원, 문의 02-3385-6536



Unique Pieces

(왼쪽부터) 어싱스로운 솔라스트 페어 링, 클래식하고 우아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솔라스트 링, 중앙의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다이아몬드 두 줄을
비드 세팅해 볼륨감이 돋보인다. 심플한 플래티넘 밴드에 모던하고 세련된
커팅의 다이아몬드가 조화를 이루는 에메랄드 컷 티파니 밴드 링,
클래식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솔라스트 밴드 링, 어떤 다이아몬드
링과도 어울리는 이클립드 심플한 디자인이다. 모두 티파니.

Engagement icon

섬세하고 완벽한 커팅은 오랜 역사를 지닌 세계적인 이름 아래 완성된다.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향한 순수한 열정이 담긴
블루 박스의 설렘, 티파니가 선보이는 가장 클래식한 웨딩 링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The Classic Rings

(왼쪽부터) 플래티넘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하프 세팅한 다이아몬드 웨딩
밴드 링,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점점 가늘어지는 우아한 디자인의 밴드에
정교한 커팅이 돋보이는 티파니 하모니 링, 리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춤추게 세팅한 웨이드 세팅 밴드 링, 웨딩 링의 대명사이자 결혼반지의 시초가
된 티파니 세팅 링, 6개의 프롱이 리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들어
올려 빛의 투과율과 광채를 극대화한다. 레이아웃할 수 있는 심플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밴드 링, 모두 티파니, 문의 02-547-9488 에디터 배미진



(왼쪽부터 차례대로) 부드럽게 커링한 화이트 세라미과 30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원형 펜던트의 조화가 여성스러운 올트라 뉴 펜던트 네크리스 9백만원대 **사실 확인주얼리**, 풀리지 않는 매듭과 사랑의 약속을 뜻하는 리본에서 영감을 받은 뉴 브라운 플라티넘 골드 네크리스 1백만원대 **루시예**, 가브리엘 사블이 가장 사랑했던 꽃인 동백꽃을 형상화한 7캐럿이 펜던트 네크리스 9백만원대 **사실 확인주얼리**, 골드 볼을 두른 올방울 모티브에 8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새빨 보행 화이트 골드 펜던트 네크리스 7백만원대 **부세론**, 에이지 넘치는 뉴욕의 건축물과 티파니의 일피넷 7가 지난 수작적이면서도 감동한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티파니 T 스마일 펜던트 네크리스 1백만원대 **티파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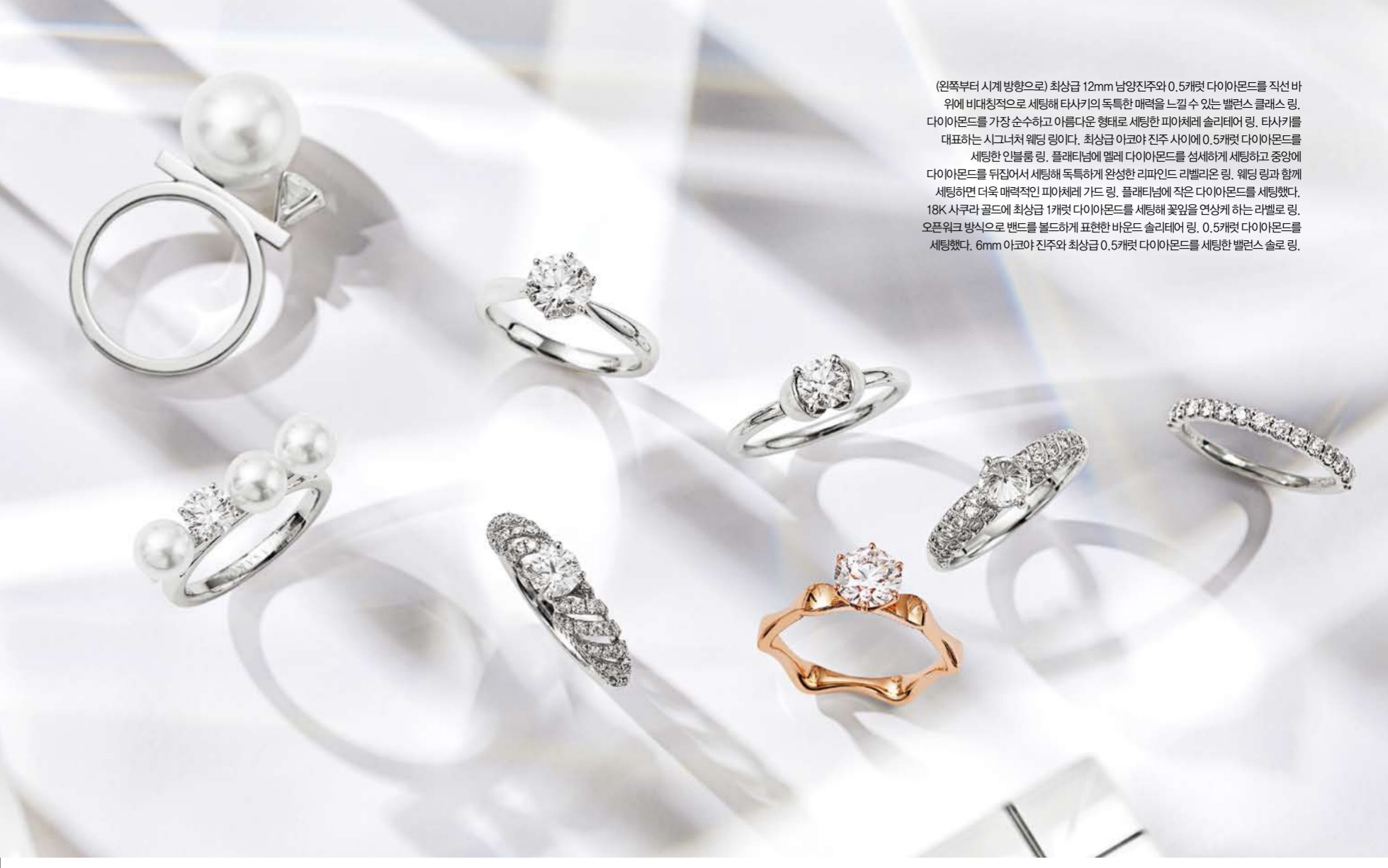
to you with Love

작지만 강렬한 오라로
목선에서 우아한 빛을 발하는
데일리 네크리스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차례대로) 심플한 원형 펜던트에 불가리 더블 로고 장식과 오닉스를 세팅한 미니 사이즈 불가리 불가리 컬렉션 옐로 골드 네크리스 1백만원대 **불가리**, 꽃봉오리를 형상화 하는, 향연으로 나뉜 이코아진주 사이에 핏빛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인블롬 네크리스 2백20만원대 **타사키**, 조약돌을 닮은 원형 캡슐 펜던트에 영롱한 자개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이몰레드 드 카르파에 네크리스 5백10만원 **카르파에**, 브랜드의 상징적인 모티브를 화이트 세라미, 다이아몬드, 옐로 골드, 핑크 골드 등 다양한 소재로 표현한 라트르 화이트 미니 링 펜던트 네크리스 9백만원대 **부세론**, 에디터 **권유진**

불가리 02-2056-0172 타사키 02-3461-5558 카르파에 1566-7277 부세론 02-3213-2246
사실 확인주얼리 02-3442-0962 루시예 02-512-6914 티파니 02-547-9488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최상급 12mm 남양진주와 0.5캐럿 다이아몬드를 직선 바 위에 비대칭적으로 세팅해 타사키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밸런스 클러스 링. 다이아몬드를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세팅한 피아세레 솔라티어 링, 타사키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웨딩 링이다. 최상급 아코아진주 사이에 0.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인블롬 링, 플라티넘에 핏빛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세팅하고 중앙에 다이아몬드를 뒤집어서 세팅해 독특하게 완성한 리파인드 리베리온 링, 웨딩 링과 함께 세팅하면 더욱 매력적인 피아세레 가드 링, 플라티넘에 꽃잎을 연상케 하는 리베로 링, 18K 사쿠라 골드에 최상급 1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꽃잎을 연상케 하는 리베로 링, 오픈워크 방식으로 밴드를 볼드하게 표현한 바운드 솔라티어 링, 0.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6mm 이코아진주와 최상급 0.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밸런스 솔로 링.

Diamonds in excellence

빛깔과 커팅, 투명도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다이아몬드는 주얼리 원석 중 가장 까다로운 소재다. 희소하고 고귀하기에 결혼이라는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는 동반자로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가치를 가장 높이 평가받기도 한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이 아닌 만큼 정보가 부족하기 마련인데, 이럴 때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은 공신력 있는 주얼리 브랜드의 다이아몬드인지 여부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퀄리티가 가장 높은 다이아몬드를 공급하는 사이트홀더, 타사키

웨딩을 앞두고 예뻐 준비가 걱정된다면 가장 먼저 유서 깊은 주얼리 브랜드의 다이아몬드에 집중하길 권한다. 아름다운 세팅과 재산으로서의 지속성이라는 다이아몬드의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지키길 원한다면 말이다. 오랜 노하우로 아름다운 주얼리 컬렉션을 완성하는 브랜드의 다이아몬드는 브랜드 이름만으로도 보험증서를 확보한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진주로 잘 알려진, 일본을 대표하는 주얼리 브랜드 타사키(TASAKI)는 출신이 다른 다이아몬드로만 주얼리를 세공한다.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원석 공급원인 DBGSS(De Beers Global Sightholder Sales)에서 직접 원석을 거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이트홀더에게 신뢰도 높은 다이아몬드를 이용해 보석을 완성하는 것이다. 얼핏 어렵게 느껴지는 '사이트홀더'는 가치가 가장 높은 다이아몬드를 거래하는 데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또 한번 획득한 후 5년마다 심사를 거쳐 자격을 유지할 만한 기업인지 재평가하기에 1997년 이후로 사이트홀더 자격을 유지해온 타사키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이렇게 사이트홀더로서 다이아몬드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업 가치와 뛰어난 감별력, 연마 기술이 필요하다. 원석을 최고의 다이아몬드 주얼리로 세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사이트홀더의 자격 요건인 것이다. 일본과 한국에서 유일하게 자격을 갖춘 타사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 퀄리티의 다이아몬드를 거래할 수 있기에 고객들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진다. 환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보장한다.

신부를 위한 타사키의 특별한 웨딩 기프트

진주 양식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타사키는 다이아몬드 또한 원석 구입에서부터 자체 감정과 연마까지 직접 진행하기를 고집하는 브랜드다. 모든 원석은 숙련된 장인의 정확한 커팅을 거쳐 영원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로 다시 태어난다. 다이아몬드 연마는 1/100mm 단위의 연마와 연마량을 제어하는 치밀하고 섬세한 작업임에도 높은 등급인 'Excellent' 컷의 양산화에 성공해 다이아몬드 업계 전체의 퀄리티를 리드하게 되었다. 그 후

한층 기술을 높여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에서 타사키가 직접 연마하는 다이아몬드는 100% '3EX(트리플 엑셀런트)' 컷을 실현했다. 타사키에서 선보이는 3EX는 컷의 종합 평가, 연마 마무리, 대칭성 등 3개 항목 모두에서 최고의 장인 정신을 구현한,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최고의 엑셀런트 컷이다. 타사키의 다이아몬드 세팅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그 완벽한 밸런스 빛깔에 감탄하게 된다. 정교한 세팅과 깨끗한 색은 눈을 사로잡는다. 타사키에서만 볼 수 있는 사랑스러운 핑크빛의 18K 사쿠라 골드와 매치한 다이아몬드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여성스러움을 지니고 있다.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세련된 피아노 링, 다이아몬드와 플라티넘만으로 완성한 클래식한 솔라티어 링은 타사키의 여성미와 우아함을 동시에 보여준다. 한편 타사키는 신부들을 위해 놀라운 웨딩 프로모션을 선보이고 있다. 기간과 구입 가격에 관계 없이 2세트 이상의 제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타사키의 화이트 컬러 2단 주얼리함을 제공하고 1억원 상당의 진주 장식 프린세스 티아라를 대어해준다. 리본 모양 디테일에 진주를 세팅한 타사키의 프린세스 티아라는 결혼식 당일 있을 수 없는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 줄 것이다. 문의 02-3461-5558
에디터 **배미진**



Banner Benefit

클래식은 영원하다라는 명제가 가장 잘 어울리는 트렌치코트의 명가 버버리. 시대와 유행을 초월해 영원한 품격을 선사하는 버버리가 선보이는, 가장 버버리다운 컬렉션 배너 백을 소개한다.

뉴 클래식 탄생, 세대를 초월하는 버버리 배너 백
봄을 맞아 신상 백을 눈여겨보고 있다면 유행을 좇지 않는 클래식함과 럭셔리함을 갖춘 버버리의 배너 백을 주목할 것. 버버리 배너 백은 심플한 디자인의 토트백으로, 버버리 고유의 가죽이자 가죽 표면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 인공적인 느낌을 배제한 그레이니 가죽으로 제작했다. 배너 백의 클래식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디테일은 바로 가방 옆면에 은은하게 수놓은 하우스 체크 디테일이다. 하우스 체크 디테일은 버버리의 헤리티지 중 하나로, 우아함을 배가한다. 이 백의 가장 큰 특징은 승마용품용을 연상시키는 측면의 버클 잠금장치와 자석 스냅 단추 여밈. 버클 디자인은 버버리 로고인 말 타는 기사를 상징하기도 하는 승마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해 럭셔리 스포츠인 승마가 지닌 고급스러움과 클래식함을 표현했다. 모서리는 핸드 페인팅 처리해 간결하고 그래픽적인 효과를 연출했다. 거기에 클래식이라고 불리기 위한 덕목 중 하나인 실용성도 갖추었다. 탈착 가능한 어깨끈으로 토트백과 숄더백 두 가지로 연출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이며, 스몰 사이즈는 미니 클러치 백처럼 가볍게 들 수 있다. 주춤 출근할 때나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모두 들 수 있으며, 사이즈의 변주가 선사하는 매력은 오랫동안 세대를 초월해 함께하는 아이템으로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블랙

과 화이트와 같은 기본 컬러에서부터 네이비, 그린, 연핑크, 아이보리, 트렌치 컬러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이다. 이외에 다른 컬러도 추가로 라인업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볼 것. 복잡한 프린트 없이 심플한 디자인, 보는 것만으로도 탐스러운 가죽의 질감이 더한 실용성은 버버리 배너 백이 영원히 추앙받는 클래식 백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한다. 문의 02-3485-6583 인터넷 **배너 백**



new iconic Bag

자유로운 버킷 실루엣이 우아함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리키 백으로부터 이어지는 최상의 소재와 빈티지한 리키 락 장식의 기품 덕분이다. 유려피던 감성과 캐주얼한 실용성을 모두 담은 랄프 로렌 리키 드로스트링 백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위) 심플한 화이트 컬러와 실버 리키 락 장식이 신택한 인상들을 이루는 우아한 드로스트링 백, 사치니한 광택이 돋보이는 메탈릭 실버 하이톱 스니커즈 모두 **랄프 로렌 컬렉션**. (아래) 클래식한 캐주얼 컬러 가죽에 빈티지한 리키 락 장식을 더해 고전미가 느껴지는 드로스트링 백, 네이비 컬러의 미니 리키 브리프케이스 모두 **랄프 로렌 컬렉션**.

The Great Escape

던힐의 커다란 가죽 트래블 백에 가벼운 실크 셔츠와 활동성을 높인 재킷, 몸을 포근하게 감싸는 드라이 코트 니트, 언제라도 바다에 뛰어들 수 있는 수영복을 담으면 준비 끝이다. 자, 이제 자동차의 시동을 걸고 당신이 그리던 그곳으로 떠나는 거다.

스타일리시한 탈출, 알프레드 던힐 2015 S/S 컬렉션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마시는 칵테일 한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나른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는 여행지로의 탈출은 상상만으로도 늘 달콤하다. 영국 남성 럭셔리 브랜드 알프레드 던힐(Alfred Dunhill)은 바로 이 여행지로의 탈출에서 영감을 얻어 편안하면서도 존재감이 드러나는 2015 S/S 클래식 이지 웨어를 지난 12월, 중국 상하이 알프레드 던힐 홀에서 공개했다. 하지만 아름다운 영국식 정원이 인상적인 던힐 홀은 과거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트윈 빌라를 개조해 만든 유서 깊은 장소. 이곳에 꾸민 2015 S/S 프레젠테이션 현장은 고풍스럽고 클래식한 던힐 홀의 인테리어와 어울려 마치 여행지의 고급 리조트에 초대받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번 컬렉션은 작년에 새롭게 임용된 던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존 레이(John Ray)의 공식적인 두 번째 컬렉션으로,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던힐 맨의 여행에 대한 상에서 탄생되었다. 트래블 룩인 만큼 편안하고 실용적인 스타일 이 주를 이루지만, 알프레드 던힐이 추구하는 정인 정신과 영국 신사의 당당함을 담아 우아하고 클래식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슬림 코트 팬츠에 곁들여 입은 실크 시퍼리 오버 셔츠와 수영복 위에도, 클래식한 팬츠에도 멋스럽게 매치할

수 있는 가볍고 경쾌한 길이의 코트 세일링 재킷, 바삭한 느낌의 드라이 코트 니트가 이번 시즌 키 아이템. 실루엣이 부드러운 실크 셔츠와 클래식하지만 여유로운 핏의 싱글브레스트 슈트는 여행지에서 집착스러운 약속이 잡혔을 때 수영복 위에 입을 수 있도록 길게 제작해 활용도를 높였다. 던힐 컬렉션 최초로 미국적인 프린트를 곳곳에 사용해 젊은 감성을 더한 점도 매우 신선하다. 빅토리안 식물의 드로잉부터 양치기를, 목화 꽃봉오리, 조개껍질까지, 작고 경쾌한 패턴으로 영국 특유의 위트를 잃지 않았다. 정통 슈트의 대가답게 던힐의 헤리티지를 담은 포용한 이브닝 룩도 함께 선보였다. 실루엣 제작한 화이트 이브닝 재킷은 화려하지만 과하게 격식을 차린 스타일이 아니라, 여행이나 일상에서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 여행을 갈 때 스타일리시한 워드먼트 백도 빼놓을 수 없다. 전통적인 여행 가방에서 영감을 받은 듀크 컬렉션, 스포티한 디자인과 나일론 소재의 가드맨 컬렉션은 던힐이 이번 S/S 시즌에 강조하는 대표 액세서리다. 여행을 통해 아무나 훔쳐 낼 수 없는 영국 신사의 정신과 혁신, 매력, 위트를 발견한 존 레이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항상 아름답고 가치 있는 액세서리를 만들고 싶었다. 듀크와 캔들링 가방은 물론, 액세서리에 사용한 커스텀 메이드 하드웨어는 던힐의 드래피드 헤리티지를 보여주는 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번 시즌 잉글리시 마스터드, 인디애노, 오렌지, 월롱 그린, 블랙 핑크 등 태양에 그을린 피부와 부드럽게 매치될 아름다운 컬러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다. 존 레이의 "이번 시즌 색조는 과거 어느 날, 사람들이 바다에서 보냈던 게으르고 길었던 하루를 행복하게 떠올리며 만들었다. 영국의 목축과 해안의 선명하고 따뜻한 색상이 주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늘 바쁜 일상에서의 탈출을 원한다. 여행지에서 느끼는 슬럼프와 기대를 담은 그곳하고 새롭고 실루엣의 알프레드 던힐 룩은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에디터 권유진, 사진이 현지 취재

1 부드러운 질감의 더블브레스트 재킷과 슬림 팬츠, 감각적인 워드먼트 백으로 완성한 알프레드 던힐의 2015 S/S 룩. 2 던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존 레이의 여행지로의 탈출에서 영감을 얻어 세련되고 우아한 클래식 이지 웨어를 선보였다. 3 던힐 프레젠테이션은 유럽 특유의 클래식함이 느껴지는 중국 상하이 던힐 홀에서 진행되었다.



랄프 로렌의 새로운 상징, 리키 드로스트링 백

랄프 로렌이 그의 만렙이자 영원한 뮤즈인 리키 로렌에게서 영감을 받아 만든 리키 백. 클래식한 디자인에 장인들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빚어 만든 리키 백은 오랜 시간 브랜드의 상징적인 백으로 사랑받아왔다. 이번 시즌에는 리키 백을 유쾌하게 변주해 출시한 '리키 드로스트링 백'이 새로운 아이콘 백으로 부상했다. 매 시즌 새로운 소재와 컬러, 사이즈로 다양하게 출시되는 뉴 백들 사이에서 아이콘 백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브랜드의 전통을 품은 럭셔리한, 트렌디한, 실용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덕목을 만족시켜야 할 것. 그 조건을 고루 갖춘 리키 드로스트링 백은 랄프 로렌 대부분의 백들처럼 빈티지 리키 락 백에서 영감을 받아, 리키 백만의 시그니처인 리키 락 장식을 사용해 특유의 우아함을 엿볼 수 있다. 리키 드로스트링 백의 매력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바로 유려한 버킷 실루엣. 일명 '복주머니'라고도 불리는 이 버킷 실루엣은 한동안 잊혀다가 최근 다시 트렌드의 정점으로 부활했다. 백 앞부분을 조이는 정도나 드는 방법에 따라 내추럴한 무드나 무심한 듯 세련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어 2015년 패션의 버킷 리스트로 떠오를 정도. 오랜 기간 유행을 탔던 클러치나 호보 백, 그밖의 잇 백들보다 유니크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점도 트렌드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 중 하나다. 즉 유행을 좇지 않는 클래식함을 갖추었으면서도 유행의 최전선에 있는 백이라는 반전이 리키 드로스트링 백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인 것이다. 실용성 부분에서도 매우 만족스럽다. 손잡이가 길어 손으로 잡거나 팔에 걸치고 다니기에도 편하고, 긴 스트랩이 있어 어깨에 가볍게 댈 수도 있다. 리키 락으로 마무리한 정면의 포켓 외에도 내부에 2개의 포켓이 있어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한다. 이처럼 럭셔리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실용성, 트렌디함을 모두 갖춘 랄프 로렌 리키 드로스트링 백의 귀추를 주목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한국에는 화이트·캐벌·블랙·네이비·오렌지 컬러의 송아지 가죽 소재로 먼저 선보이고 엘리게이터, 캔버스와 같은 다양한 소재로도 출시될 예정이니 기대해도 좋다. 문의 02-545-8200 에디터 배미진, 김수경



스타일리시한 여행, 아이콘 백이세상

editor's Pick

촉촉한 피부를 위한 똑똑한 스킨케어와 화려한 포인트 컬러 메이크업이 이번 시즌 키워드다. <스타일 조선일보>에디터들이 직접 사용하고 선택한, 매력적인 아이템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원작 유티뷰 순서대로 **디올 5 컬러의 키펀트 오브 얼터 에디션 856 하우스 오브 핑크**
디올의 스프링 컬렉션을 언제나 눈여겨보게 되는 이유는 뛰어난 색감 때문이다. 핑크 컬러를 베이스로 바른 후, 토포 브라운이나 퍼플 컬러로 그라데이션하고, 눈 입마에 핑크 컬러를 바르면 깊이 보아져서 특목 푸는 눈매를 연출할 수 있다. 7.2g 8만3천원. 문의 02-516-4257_by *인턴 에디터 김수경*

랑콤 압출취 루즈 립스틱 160 스칼렛 로즈
입술에 장미 꽃잎을 물들인 듯 예쁜 레드 컬러 립스틱. 선명한 발색력을 자랑하며, 립글로스를 덧바른 듯 글로사하다. 인티에이징 성분이 함유되어 립라인을 바르지 않아도 수분이 유지된다. 입술 중앙에 더 바른 후 특목 두드리면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 매달리 립스틱으로 추천한다. 4.2ml 3만9천원. 문의 080-022-3332_by *아사스트트 에디터 배미진*

랑방 에끌라드 아르페주 푸르 울트
랑방의 시그니처 퍼플 중 하나인 에끌라드 아르페주의 남성 버전 향수. 프레시한 시트러스 향이 청량함을 전하고, 부드러운 로즈메리 향이 그 뒤를 이으며 싱그러움 마스크 향으로 마무리된다. 100ml 11만5천원. 문의 080-800-8809_by *인턴 에디터 김수경*

엘비타 네다 브라이트 브라이팅 캔센트레이트
촉촉한 안색이 고인이라면 꼭 한 번 사용해볼 것. 다섯 가지 화이트 플라워에서 추출한 식물 복합체와 감초류가 다크 스팟이나 기미 등 어두운 고인 부위에 빠르게 작용해 안색을 환하게 밝혀주는 집중 화이트닝 솔루션이다. 젤 타입으로 피부에 촉촉하게 스며든다. 30ml 7만 원. 문의 02-3014-2997_by *인턴 에디터 김수경*

바이레드 리브리스 향초
바이레드의 향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흔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향 때문이다. 초를 태우지 않아도 은은하게 발산하는 향과 심플하지만 눈길을 사로잡는 블랙 & 화이트 패키지는 인티에이징 스킨케어로도 훌륭한 역할을 한다. 만년진, 외임드 듀베르조, 블랙 시더우드 등이 조합된 리브리스 향은 세시하고 로맨틱하다. 9만6천원. 문의 02-3440-3948_by *에디터 권유진*

셀화수 진설 아이크림
40~50대 여성에게 추천하고 싶은 토털 인티에이징 아이크림. 진귀한 정원에서 추출한 인티에이징 성분인 DAA(De-Aging Active)를 비롯해 홍삼과 백삼 사포닌 등을 함유해 눈가 노화의 징후를 집중적으로 케어한다. 리치한 질감으로 눈가 피부를 부드럽게 케어하며 은은한 정용 향은 보습이다. 25ml 27만원. 문의 080-023-5454_by *에디터 권유진*

글레드보 보베 세럼
공산제 에끌라시방 이오 흡수가 빠른 촉촉한 세럼 타입으로 여러 번 덧발라도 부담이 없고 메이크업을 해도 밀리지 않아 만족, 비오는 축시 눈가에 미세한 찰이 반짝이듯 윤기가 감도는 것이 특징이다. 고가의 하이드로 제품으로 유명한 브랜드지만 11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 매력적이지 않은가. 15ml 11만원.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권유진*

슈에무라 리고스피름 WN02 푸시아 핑크
립스틱을 바른 듯 강렬한 발색력과 립 글로스를 덧바른 것 같은 글로사함, 그리고 지속력은 립트 못지않은 슈에무라의 신기술 립 라커다. 선명한 발색에도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큰 장점. 5.2g 3만7천원. 문의 080-022-3332_by *아사스트트 에디터 배미진*

에바다 뷰티피잉 바디 모이스처라이저
이젤에 사후한 후 보디로션을 듬뿍 발라도 오후엔 되건 건조해지는 극단적 피부지만, 이 모이스처라이저를 바른 후에는 건조해질 염려가 없어 한시름 놓았다. 오일과 시아버터를 함유해 바쁜 아침 따로 오일과 샤워 바를 따로 없이 한 번만 발라도 수분이 오래도록 유지된다. 200ml 3만 8천원. 문의 02-3446-6930_by *인턴 에디터 김수경*

라프레리 벨루라 스위스 아이스 크리스탈 에멀전
수분감이 풍부해 공기처럼 가벼운 고보습 제품. 극한의 환경에 적응하는 스위스 식물 성분이 담겨 있어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편안하게 보호해준다. 산뜻하고 부담 없는 텍스처에도 효과가 뛰어나기에 프리미엄 브랜드의 자취를 확실히 느낄 수 있다. 50ml 40만5천원. 문의 02-080-511-6626_by *에디터 배미진*

클라리스 60주년 기념 오일 플렉서 리미티드 에디션
클라리스는 오일의 명가라는 이름에 걸맞게 탄생 60주년을 맞은 블루 오기드 페이스 트리트먼트 오일을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건조함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수분을 공급하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데 효과적이다. 30ml 6만2천원. 문의 080-542-9052_by *에디터 배미진*

샤넬 주얼드리스드 250 크레센드
핑크 컬러는 자칫 잘못 바르면 양 볼만 빨간 촌스러운 메이크업이 되기 십상인데,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이 핑크 컬러는 브라운 톤 한두 번 터치하면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차크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4g 5만8천원. 문의 080-332-2700_by *에디터 권유진*

톰 포드 벨트 오기드
존재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톰 포드의 향수는 어떤 제품을 선택해도 후회가 없을 테지만, 강력하면서도 다정한 관능적인 향기를 원한다면 벨트 오기드는 확실히 매력적이다. 묵직한면서도 달콤한 향기, 베르가모트, 맨다린, 물론 제스민과 로즈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향을 담아 지속력이 뛰어나다. 50ml 14만원. 문의 02-3440-2760_by *에디터 배미진*



Multiple action

에센스 성분을 담은 기초 스킨케어는 이제 트렌드를 넘어서 필수 아이템이 되었다. 촉촉하고 매끈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탱탱하게 탄력 있고 힘 있는 피부를 위해, 새로운 멀티 토닝 에센스를 만나보자.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신뢰와 뛰어난 기술력, 입생로랑 뷰티의 인티에이징 (스타일 조선일보)는 입생로랑 뷰티가 한국에 첫선을 보인 2012년부터 다양한 기사를 통해 꾸준히 제품을 추천해왔는데, 대중에게 가장 사랑받은 제품은 바로 한류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에 등장한 립스틱이다. 이 립스틱을 구매하기 위해 강남 유명 백화점 1층 입생로랑 뷰티 매장에 연형을 불문하고 줄을 섰을 정도니 기이 광풍이라 할 만하다. 이제 여성들이 립스틱을 선택할 때 최우선 순위에 입생로랑을 떠올리게 되었고, 이는 한국 진출 3년 만에 거둔 놀라운 결과다. 립스틱이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다면 뷰티 전문가들에게 인정한 것은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다. 피부에 빛을 선사하면서 뛰어난 밀착력을 자랑하는 싹키한 파운데이션은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여배우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믿을 만한 제품이다. 그렇다면 입생로랑 뷰티 제품 중 뷰티에디터들이 가장 신뢰하는 아이템은 무엇일까? 바로 인티에이징 스킨케어 라인인, 포어버 유스 리베레이터 라인이다. 잘 살펴보면 입생로랑의 메이크업 제품은 모두 피부 밀착력, 즉 피팅감이 뛰어나다. 그 이유는 바로 피부에 잘 스며들도록 하는 스킨케어적인 요소도 갖추었기 때문이다. 좋은 메이크업 제품이라면 당연히 들뜨지 않고 촉촉하며 지속력이 뛰어나야 하는데, 이는 품질 높은 스킨케어 제품의 특징과 같다. 좋은 스킨케어를 만드는 브랜드가 고급스러운 질감을 표현하는 메이크업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일찍이 스킨케어 시장을 석권한 바 있는 입생로랑의 포어버 유스 리베레이터 라인인 보랏빛 그라데이션으로 상징되는 젊음의 생기를 가득 담은 인티에이징 라인이다. 특히 인티에이징 크림은 30대부터 50대까지 모두 만족도가 높은 쏠쏠한 제형이고, 주름 개선 효과와 보습력 모두 탁월하다. 입생로랑은 유럽 최재의 화장품 회사인 로레알 그룹의 핵심 브랜드에 인티에이징 성분에 대한 투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포어버 유스 리베레이터는 1백 년간의 연구를 통해 7개의 노벨상 수상에 빛나는 글리칸비올로지와 이 연구의 핵심 성분인 글리칸에서 영감을 받은 성분을 담았다. 바로 혁신적인 글리칸 복합체 글리칸 액티브를 함유한 인티에이징 전문 라인이자 입생로랑 피부 과학의 상징, 포어버 유스 리베레이터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올해 입생로랑은 이 인티에이징 라인의 효과를 극대화할 첫 번째 스킨케어 포어버 유스 리베레이터 에센스-인-토너를 선보인다.



주름 개선과 수분 공급을 한 번에, 멀티 토닝 에센스
이 제품은 사용하기 전 손에 닿아마자 "역시 다르다"라는 감탄사를 자아내게 한다. 손등에 닿았을 때 텍스처가 일반적인 토너처럼 푹 파지며 흘러내리지 않고 몽글몽글하고 동그란, 탱탱한 물방울처럼 맺힌다. 가볍게 보라색을 띠는 이 텍스처는 얼굴에 바르자마자 속삭이듯 스며들고 광장히 빠르게 수분을 전해준다. 토너임에도 주름 개선 에센스 성분을 함유해 힘 있고 강력하게 피부에 탄력과 매끈함을 선사한다. 입생로랑의 스킨케어에는 글리칸 액티브라는 꽤 생소하고 어려운 인티에이징 성분이 담겨 있는데, 사실 아무리 과학적 성분이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거나 사용감이 떨어지면 소비자의 미움을 사오잡기는 어렵다. 이렇듯 인티에이징 유효 성분을 피부에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매력적인 텍스처를 만들어야만 여성들이 이 제품을 꾸준히 열심히 사용하고 효과를 느낄 수 있게 입생로랑의 스킨케어, 에센스-인-토너의 제형은 꽤나 매력적이다. 바르자마자 피부 전체에 매끄럽게 스며들고 윤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 바르는 세럼과 크림의 흡수력이 확실히 높아진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티에이징 유효 성분의 전달력 역시 높아지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만약 이 제품이 작은 병에 들어 있다면 세럼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매력적인 제형이다. 세 가지 글리칸의 혁신적인 복합체인 글리칸 액티브를 함유한 포물라가 피부 장벽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 탄력 있고 힘 있는 피부를 개선한다. 단순히 잘 불리는 텍스처를 넘어, 주름 개선과 수분 공급 유효 성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주름 개선, 탄력, 보습, 건 강한 윤기를 모두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세 가지 나리신 오일도 풍부한 보습과 영양 성분을 더해 맑고 촉촉한 피부를 완성한다. 크리미한 영양 성분이 24시간 보습 효과를 선사하고 싶은 피부에 닿는 순간 빠르게 흡수되어 쏠쏠하면서도 촉촉한 피부를 완성한다. 스킨케어 첫 단계부터 피부에 완벽한 촉복을 선사하고 싶은 여성이라면 강력한 피부 개선 효과의 에센스-인-수분 토너를 한 병에 담은 입생로랑의 에센스-인-로션을 선택하길 권한다. 200ml 9만7천원. 문의 080-347-0089 에디터 배미진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일보>와 파리제인 디자이너 코즈메틱 '입생로랑'이 함께하는 NEW 멀티 토닝 에센스 10ml 체험 증정 프로모션

본 쿠폰을 지참하고 입생로랑 매장을 방문하시는 <스타일 조선일보> 독자 여러분께 강력한 피부 개선 효과의 에센스와 촉촉한 수분 토너를 한 번에 담은 NEW 멀티 토닝 에센스, 포어버 유스 리베레이터 에센스-인-로션 10ml(1종, 약 5천원 상당)를 드립니다.



◆ 기간 2월 4일(수)~2월 15일(목) (2월 동안) ◆ 문의 080-347-0089
◆ 증정 장소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2층 · 경기점 · 센텀시티점 · 갤러리백화점 명동점 WEST,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 신촌점 · 대구점, 롯데백화점 잠실점 · 수원점 부산본점의 입생로랑 뷰티 부티크 매장
※ 1일 1백 명 한정 수량으로 증복 증정하지 않습니다. ※ 조기 품절 시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에스티 로더-뉴트리브 웨딩 세트 보석 라인이라는
 애정으로 불릴 만큼 럭셔리한 라인이기에도 기다로운
 시부모님의 마음을 만족시킵니다. 소프트닝 로션
 250ml 8만원, 알티미트 리프트 에이지-코렉팅 세럼
 30ml 39만원, 크림 50ml 39만원, 아이 크림 15ml
 20만원, 총 1백6만원대.



랑콤 압슬뤼 엑스트레 세트
 시부모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예비 머리의 마음을 표현해줄
 제품. 랑콤 연구팀이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찾아낸 '랑콤 잠미'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함유한 화장품 세트다.
 리제네레이팅 앤 리뉴얼 얼티밋
 컨센트레이트 30ml 52만원대,
 뷰티피잉 미스트 로션 150ml
 15만원대, 아이 컨투어 리뉴얼
 15ml 36만원, 크림 100ml 53만원,
 총 1백56만원대.



설화수 한방 웨딩 세트 사적 어른들에게 기쁨 있는
 예단 화장품 선물하고 싶다면 설화수 예단 세트가
 정답이다. 윤조에센스 60ml 8만5천원대, 자음수
 125ml 5만7천원대, 자음유액 125ml 6만3천원대,
 미안파니서 80ml 9만원대, 총 29만5천원대.



샤넬 수블리마지 세트 세련부터
 크림, 아이크림, 마스크까지 샤넬의
 최고가 라인 제품으로만 구성된
 다채로운 라인업이 시어머니께
 매일 스킨케어에서 관리받는 듯한
 느낌을 선사해줄 예단 세트. 레썬스
 30ml 51만원, 수블리마지 에센셜
 리제네레이팅 마스크 50g 26만원,
 라크림 이오 15g 22만4천원, 라
 크림 피인 텍스처 50ml 46만원, 총
 1백45만4천원.

Luxury wedding gifts

예단 화장품은 웨딩을 아름답게 만드는 귀한 선물이다. 예를 표하기 위해 가장 귀한 비단을 드리던 그 마음 그대로,
 세심하게 선택한 화장품 예단은 여자들만의 친밀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다정한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럭셔리 코즈메틱 브랜드의 스테디셀러 제품부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특별한 성분의 안티에이징 화장품까지
 아름다움의 정수만 모은 예단 화장품 세트를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클라린스 탄력 웨딩 세트 웨딩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탄력을 관리하고 싶은 신부에게
 꼭 필요한 제품. 토달 V 에센스 50ml
 9만4천원, 더블 세럼 30ml 12만원,
 엑스트라-피어링 나이트 크림 50ml 11만원,
 아이크림 15ml 7만5천원, 총 39만9천원.



SK-II 광채 웨딩 세트 예식
 당일 신부와 시어머니 모두에게
 실용적인 광채 웨딩 세트. 직찬한
 안색을 맑고 투명하게 밝혀
 물광 피부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도록 도와줄 제품이다.
 페이스 트리트먼트 에센스 150ml
 17만원대, 셀루미네이션 오라
 에센스 30ml 17만원대, 딥 서지
 EX 크림 50g 15만원대,
 총 49만원대.



시세이도 퓨처 솔루션 LX 세트 특이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실용적인 예단 세트를 찾고 있다면 표피와 진피에 모두
 작용하는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로 주름 개선에 탁월한
 시세이도 퓨처 솔루션 LX를 추천한다. 수메리아 레디언스
 세럼 30ml 35만원, 컨센트레이티드 밸런스 스프리
 150ml 17만원, 토달 리제네레이팅 크림 50ml 40만원,
 토달 프로텍티브 에몰전 75ml 35만원, 총 1백27만원.



디올 드림 웨딩 세트 보다 특별한 예단을
 준비하고 싶다면 귀한 성분으로 만든
 화장품 선물하자.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한 디올 가든에서 재배하는 식물
 추출물에 디올만의 첨단 테크놀로지를
 결합해 탄생시킨 캡처 토달 스킨과 세럼이
 예단의 품격을 높여줄 것이다. 캡처 토달
 르 세럼 30ml 20만5천원, 드림스킨
 50ml 17만5천원, 르 그랑드 마스크
 50ml 26만원, 총 64만원,
 인턴 에디터 김수경

